

# Style 1 조선일보

JULY 2020  
vol.207



JACKSON WANG. WILLOW SMITH. MAISIE WILLIAMS. RAMI MALEK. TROYE SIVAN.  
THE PASHA COMMUNITY ON CARTIER.CO.KR

PASHA DE *Cartier*



CHANEL







# 여름, '자연'스럽게

화창한 여름날을 기념하게 만드는 라피아 백, (유티터) 생 로망 by 안토니 바카렐로 EAST / WEST 소퓌블 레더 트리밍이 세련된 쇼퍼 백 1백만원대, 문의 02-549-5741 **발렌티노** 가디언니 IN.IT 탑 핸들 백 상세하게 엮은 라피아 가디언 캐주얼 메탈 로고 장식을 더해 우아하게 완성한 토트백 가격 미정, 문의 02-2051-4652 포토그래퍼 **최승혜** 에디터 **이주이**

영국 왕실이 사랑하는 나치 퍼퓸 하우스 펜할리곤스는 1870년부터 이어온 창의적인 유산과 영국식 위트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감성의 향수를 선보인다. 최근 출시한 핑크빛 보틀의 더 페이버릿(The Favorite)도 마찬가지다. 햇살을 받은 향긋한 민들레, 미모사, 아이리스 향으로 시작해 일몰을 연상시키는 목격한 인디언 샌들우드와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전개가 매력적이다. 브랜드는 이를 두고 18세기 영국을 통치한 앤 여왕의 곁에서 은밀한 욕망을 들켜지 않고 정차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사라 처칠을 닮은 향기로 설명한다. 우아한 듯 강인하고, 가벼운 듯 깊이 있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대체로운 결을 지녔다는 의미일 터. 100ml 27만원, 문의 02-2639-1568



# MY FAVORITE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클릭으로 떠나는 럭셔리 여행

에르메스가 상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브랜드 콘텐츠까지 감상할 수 있는 우아한 오프라인 채널 방식의 hermes.com을 선보였다. 클리닉으로 16개의 창조적인 컬렉션을 만날 수 있고, 영상과 사진, 그리고 글로 구성된 콘텐츠를 통해 에르메스 세계로 깊이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하는 WTS(Web to Shop)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과 오프라인 매장의 세심한 서비스까지 동시 경험 가능하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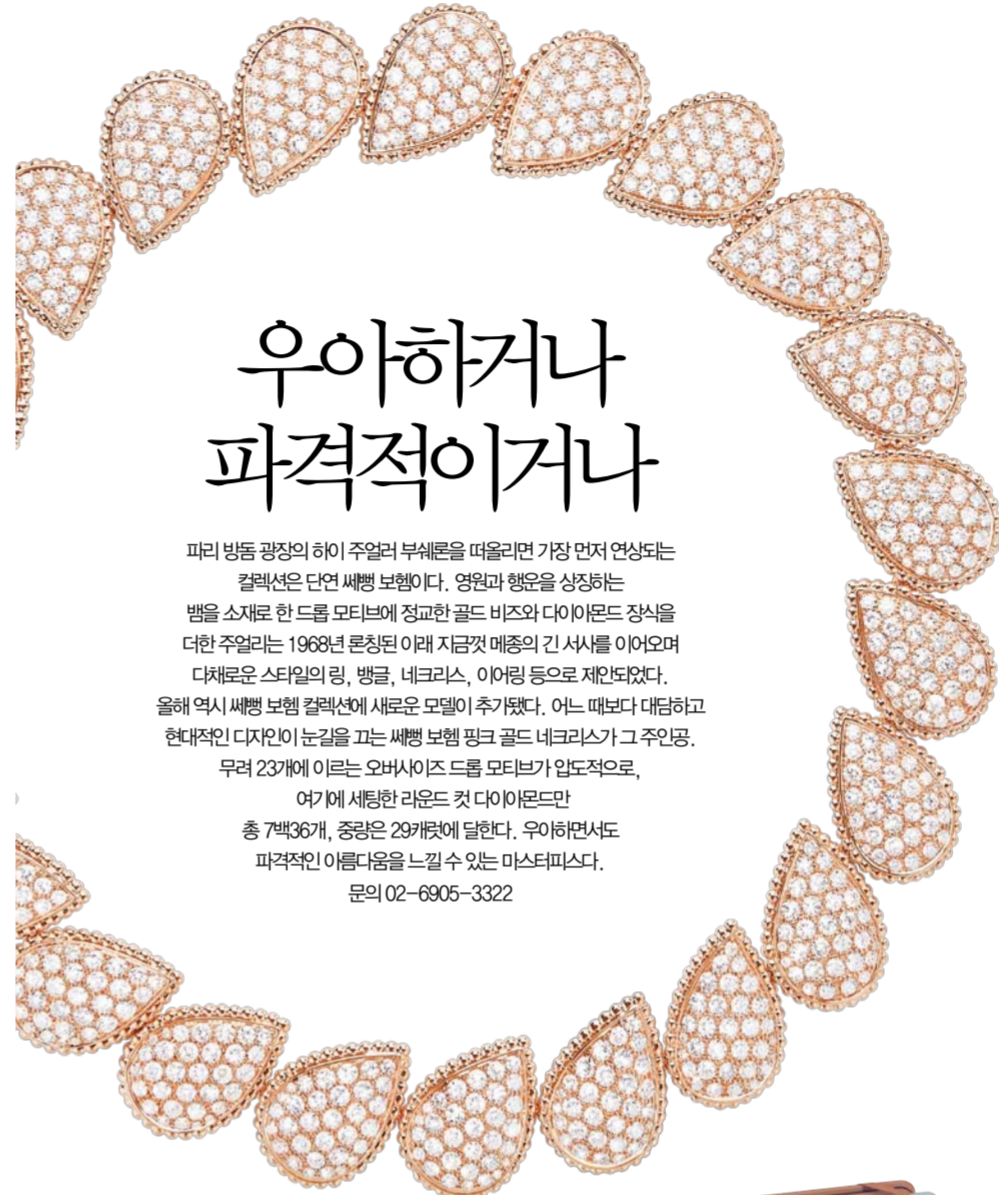


# WEARING AN ART

동양에 대한 환상과 매혹적인 식물을 애잔하며 고안한, 꽃, 나비, 코끼리, 술잔 등 브랜드의 실크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요소를 스카프, 슈즈, 가방, 의류 곳곳에 적용한 실크 캡슐 컬렉션. 브랜드 특유의 재치와 이탈리아 장식 요소의 조화가 돋보인다. 약간의 불완전함이 멋스럽게 느껴지는 스케치 형태의 패턴에 적용한 아이템은 단순히 착용하고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하나의 오브제로도 가치가 높다. 울어를 실비토레 페라기모가 공유하는 매혹적인 실크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 실크로 완성한 비바 라플 89만원, 문의 02-3430-7854

# SUMMER GREENERY

7월의 짙은 녹음을 닮은 그린 컬러 스톤 링, (유티터) **프루트 드 슈르** 링 밝은 황록색 카보숑 컷 크리스프라이즈(6.77캐럿)가 청량한 느낌을 주는 옐로 골드 링 8백19만원, 문의 02-514-3721 **빈클릭트 아일랜드** **베를리 갈리 비트윈드** 핑크 링 정교한 골드 비즈로 둘러싼 말라카이트 스톤 모티브와 다이아몬드 세팅 모티브가 손가락을 감싸는 오픈 형태 옐로 골드 링 9백만원대, 문의 1688-1906 **부세본** **새벽 보렐 말라카이트 환대** **라지 링** 뱀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생체인 공예품이 돋보이는 옐로 골드 보드에 선명한 줄무늬가 매력적인 말라카이트 드롭 모티브를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772-3508 **블리** **세르베타 비아피** 링 뱀의 유연한 라인과 비늘을 형상화한 로즈 골드 보드에 말라카이트, 다이아몬드를 교차로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피에르** **포제트 말라카이트 오픈 링** 반지 양쪽 끝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와 말라카이트 스톤을 장식해 경쾌함을 강조한 핑크 골드 오픈 링,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2 포토그래퍼 **박지영** 에디터 **이혜미**



## 우아하거나 파격적이거나

파리 방돔 광장의 하이 주얼러 부세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컬렉션은 단연 새벽 보렐이다. 영원과 행운을 상징하는 뱀을 소재로 한 드롭 모티브에 정교한 골드 비즈와 다이아몬드 장식을 더한 주얼리는 1968년 론칭된 이래 지금까지 매종의 긴 사슬을 이어오며 대체로운 스타일의 링, 뱅글, 네크리스, 이어링 등으로 재탄되었다. 올해 역시 새벽 보렐 컬렉션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됐다. 어느 때보다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새벽 보렐 핑크 골드 네크리스가 그 주인공. 무려 23캐럿에 이르는 오버사이즈 드롭 모티브가 압도적으로, 여기에 세팅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만 총 7백36개, 중량은 29캐럿에 달한다. 우아하면서도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스터피스다. 문의 02-6905-3322



# BOOK

각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와 일라스트 작가들이 자주 출근 곳의 고유한 정취가 깃든 풍경을 담은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시리즈에 3개의 새로운 에디션이 추가됐다. 비르셀로나, 모로코, 상트페테르부르크다. 프랑스 출신의 구상화가 미르크 데그랑샹(Marc Desgrandchamps)이 비르셀로나의 운곡을 순간적으로 근사하게 포착해냈고, 캐나다 현대미술가 미르셀 드자마(Marcel Dzama)가 황홀한 북 터키로 모로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냈으며, 미국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켈리 비먼(Kelly Beeman)이 역동적인 에지가 인상적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우아하게 그려냈다.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컬렉션은 루이 비통 매장 루이 비통 공식 홈페이지(louisvuitton.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일러스트와 작가의 친필 사인을 새긴 아티스트 에디션은 30권 한정판으로 출간되는데,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을 비롯한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한다. 문의 02-3432-1854

# CODE ELEGANT

진주와 트윈드는 우아함으로 정의되는 사철의 매력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샤넬만의 디자인 코드를 대담하게 적용한 2020 S/S 아이웨어 컬렉션은 다양한 소재 활용과 투톤 컬러배이션 등 클래식을 발랄하게 재해석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버틀러라이 프레임과 직사각형 캐츠 아이 등의 버전과 오벌, 파일럿, 정사각형의 선글라스 3종으로 대체로운 컬렉션을 구성해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여성에 대한 사사를 완성했다. 와이드한 템플에 다이아몬드 필링 스티칭 효과를 준 아세테이트 쉘드 선글라스 43만7천원, 문의 080-200-2700, chanel.com



## 소중한 당신을 위한

알파벳 T 모티브를 바탕으로 탄생한 티파니 T1 와이드 풀 다이아몬드 한지드 뱅글. 18K 로즈 골드의 부드러운 T 자 곡선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모던하고 대담한 터치가 돋보이는 이 주얼리는 어떤 시기와 장소, 상황에서도 스타일링에 힘을 실어줄 듯,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세상이 더할수록 가치도 배가될 것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547-9488



# FRESHEN UP

무겁고 습한 공기를 상쾌하게 바꿔줄 싱그러움 여름 향 캔들 5, (유티터 시계 방향으로) **폴리 1803 레 부지 파퓌에 이엘리 캠퍼뉴** 향 나무, 샌들우드, 피츨리, 그레이프프루트, 베르가모트 등의 노트가 조화를 이뤄 이탈리아 캠퍼뉴 지역의 여름 나무향, 숲, 나무껍질 내음을 연상시키는 향료 300g 21만5천원, 문의 1544-5114 **비비에도** **우즈 캔들** 숲속에서의 여행을 테마로 베이스 노트에 연브로산, 화이트 시더우드, 미들 노트에 제스민 페퍼, 투스카니 가주, 톱 노트에 리즈베리를 사용했다. 향을 맡는 순간 마치 숲 내음이 가득한 숲을 사이를 걷는 듯한 기분이다. 240g 9만8천원, 문의 02-3479-1688 **포라노르** **페쉬드 빈 캔들** 프랑스 프로방스 그라스(Grasse) 지역을 대표하는 나치 퍼퓸 브랜드 프라고르의 향초. 여름 햇살이 무르익어 곁에서 타질 듯한 향료의 싱그러움과 향긋한 향을 담았다. 200g 6만원, 문의 080-363-5454 **타미크 라 마들렌느 캔들** 아르센 무르투의 소설 '영아비안' 시대를 찾아오는 묘사된 것 같은 마들렌의 폭신한 텍스처와 싱그러움 레몬 향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향료 220g 12만9천원, 문의 02-3479-6049 **조 알론** **블랙베리 언 베이시 에디션 캔들**, **사들** **라네프 파피**, **뉴욕** 등 전 세계의 아이콘 도시를 각기 다른 여름 가지 향으로 표현한 사티 캔들의 서울 에디션. 월계수 잎에 특색 있는 블랙베리와 자몽 과즙을 가미한, 신선하고 프루티한 향을 느낄 수 있다. 200g 9만원대, 문의 02-3440-2750 포토그래퍼 **박지영** 에디터 **이혜미**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술 생태계는 어디로 향할까?

은 세상을 거세게 내리친 코로나19(Covid-19)를 맞닥뜨린 아티스트들의 모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듯하다. 수면 위에서 즉각적으로 코로나에 대항하는 작가들과 수면 아래에서 갈을 갈 듯 신중히 준비하는 작가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반응이 작가들의 작업 내용이나 성격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작가들 가운데는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많은데, 그중 한 명이 프랑스의 유명한 스트리트 아트 작가 JR.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해 작은 화제를 모은 다큐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을 공동 연출하기도 했던 JR은 그 자신도 코로나 양성 확진자였으나, 다행히 심한 증상 없이 완치됐다.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온 그의 시선은 노숙자들에게로 향했다. 프랑스에서는 올봄 거의 두 달에 걸쳐 이동 금지령(3.17~5.11)이 발동되는 바람에 노숙자들의 경우 행인 없는 텅 빈 거리에서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리에 있는 5천여 명의 노숙자가 있기에 하루에 5천 개의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JR은 한 달여에 걸쳐 4만3천 개의 도시락을 제공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식업계에 도움을 요청해 식재료 조달이나 조리과 관련된 도움을 받기도 했다. 아티스트로서 명성과 인기가 꽤 요긴하게 활용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코로나야방기드!

노숙자 돕기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JR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 “전시가 연기되어 할 일도 없었고, 또 늘 스탠바이 상태인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도시락 배달이 그중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그가 도시락 배달만 한 건 아니다. 작품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로 졸업이 연기된 미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함께 졸업 앨범(Graduate Together Yearbook)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학생들은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으로 촬영한 흑백사진을 보냈고, 참여율이 높은 상위 5개의 학교 건물에는 본교생들의 사진이 대형 크기로 전시된다. 또 다른 JR의 작품 ‘희망을 찾아서’는 시사 주간지 〈타임〉의 커버(4월 27일 자)에 실렸다. 〈타임〉지는 ‘코로나와 싸우는 1백 개 공동체’라는 특집을 기획했고, JR은 코로나 기간의 상징적인 작가로 부각됐다. ‘희망을 찾아서’에는, 파리의 여느 횡단보도처럼 가로로 굵게 하얀 줄이 몇 개 그려진 횡단보도가 조감도 샷으로 찍혀 있다. 이 하얀 줄 사이로 마치 창문의 블라인드처럼, 그 틈으로 밖을 쳐다보는 사람의 오른쪽 눈이 보인다. 이 눈은 외부의 움직임이 궁금한 호기심 가득한 걸러지의 눈일 수도, 다시 정상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눈이기도 하다. JR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눈은 관

심, 호기심, 희망 등을 담아낸다”며 “작가들은 비관주의가 깔린 현 세계에 유토피아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JR의 언행이나 작품은 지금까지 그의 작업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삶에서 확장된 작업을 보여줬다. JR처럼 세인의 주목을 받은 작가도 있지만, 비록 미디어 생태계에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닌 작은 것을 홀리스들과 나누는 작가도 있다. 재물 한인 작가 진유영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비로 직접 음식 재료를 사고 혼자 요리할 수 있는 양만큼의 도시락을 만들어 홀리스에게 제공한다. 그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 역시 단순하게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 나눠 먹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사실, 이 ‘점심 나누기’는 코로나 발발 훨씬 이전부터 수년 동안 행해져온 것이며, 이는 그의 ‘작업의 지속’이기도 하다. 그의 작업은 ‘은유적 과정’으로부터 실제하는 실재를 담아내며, 그 실체가 바로 타자이기 때문이다. 진유영의 점심 나누기는 그의 작업이 ‘일상생활에서 확장되고 실제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파스티르 연구소를 후원하기 위해 파브리스 이베르(Fabrice Hyber) 작가가 주축이 되어 오랑(Orlan)이나 미구엘 슈발리에(Miguel Chevalier)를 비롯한 12명의 작가로 구성된 전시가 있었다. 제프 쿤스, 아이웨이웨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스타 작가들은 이탈리아가 가장 어려웠던 3월에 ‘용기 내라!’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인물은 영국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가 아닐까 싶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트 포스터’ 자선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희망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나비의 날개 따로 이뤄진 ‘나비 무지개(Butterfly Rainbow)’(2020. 4. 20)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또 고화질 한정판으로 찍은 포스터는 저렴하게 판매해 영국 국가 의료 서비스 체계(NHS) 의료진을 후원하기도 했다. 독일 사진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는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문화 사업체를 돕기 위해 현대 사진예술계의 거목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를 비롯한 40명의 작가에게 후원을 받아 포스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는 초기에 타격이 컸던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미술관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새로운 연대〉전을 진행 중인데, 여기엔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신작도 포함돼 있다.

## 줄 수 없는 동서의 차이, ‘마스크와 마스크아트’

지구가 일일 생활관이 된 21세기의 세계인들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전쟁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내 그림에는 전쟁이 있다.” 파리가 나치로부터 해방된 뒤,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요즘 미술가들의 작업에는 또 다른 유형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아라비트로 예술을 해왔던 작가들은 당장 생활고를, 반대로 전 세계를 누비며 쉬 없이 이동했던 작가들은 전시가 대부분 취소되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공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 대다수의 공통 관심사는 과연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할 수 있는 건 뭘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허시혼 미술관은 그런 고민과 통찰력을 접하기 좋은 플랫폼 중 하나다. 지난 4월 이동을 제한하는 ‘록다운’ 기간에 접어들자 허시혼 미술관 홈페이지에는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작가 로르 프루보스트(Laure Prouvost)를 비롯한 작가 1백 명의 생각과 작업을 담은 영상 일기를 올렸다. 물론 지구촌에는 허시혼을 통해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작가들이 있다. 코로나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또 위기를 영감으로 활용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본다.

만, 코로나 사태로 동서양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생명보다 앞선 자본, 개인주의가 근간된 민주주의, 오랜 기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해왔던 서구인들은 개인 정보 유출은 견딜 수 없지만, 이동 금지령은 오히려 가볍게 받아들였다. 사실 서구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률에도 아시아와 비교해 훨씬 담담하게 팬데믹을 받아들이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은 정량이지 뿌리 깊게 달랐다. 그래서 마스크는 코로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마치 코로나 그 자체로 여겨지는 듯했다. 서구 곳곳의 스트리트 아트에서는 어김없이 마스크가 등장했다. 사람보다 먼저 마스크를 쓴 모나리자가 등장했고, 영국 브리스틀의 한 벽면에 그려진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Banksy)의 ‘피어싱을 한 소녀’(2014)의 얼굴에도 마스크가 씌워져 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터부’를 없애고, 의료진을 후원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마스크 아트)전이 열렸다.

뱅크시는 4월 15일 자가 격리 상태를 보여주는 작업을 그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그의 옥실에는 수많은 쥐가 그려져 있는데, 거울에 반사된 옥실 문(혹은 벽)에는 자택 격리 기간을 표시하는 듯이 낙서를 하는 쥐, 번기 뚜껑 위에서 불임을 보는 쥐, 자약 튜브를 빨아 터뜨리는 쥐 등의 모습이 재미있게 묘사되었다. 그는 아내가 내가 집에서 이 작품을 그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제지 있는 글도 덧붙여 격리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 5월 7일에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영국의 한 종합병원에 선사하며 의료진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 작품에는 한 소년이나 코로나 이전의 영웅 캐릭터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인형을 스프레이 기둥에 버리고, 대신 현재의 영웅인 망토와 마스크를 착용한 간호사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겨 있다. 뱅크시는 ‘비록 후박이지만, 이 그림이 병원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감사하다는 메모도 함께 남겼다. 이 덕분에 의료진의 사기가 한층 올라간 건 당연지사.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전시장에서든, 식사를 하기 전에도 모두 모바일 폰의 카메라로 먼저 음미(감상)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러한 디지털 노메드족의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작업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상태일지라도,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작가 카우스(KAWS)는 ‘어큐트 아트(Acute Art)’와 협업해 가상의 데이터가 혼합되는 증강현실(AR) 조각 작품 ‘홀리데이 익스팬디드(Holiday Expanded)’를 제작했다. 지난 3월 아트에 특화된 기술 기업인 어큐트 아트는 이를 전 세계에 선보였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우스의 대표 캐릭터 ‘컴패니언(Companion)’이 내가 있는 현실의 배경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모바일 기기로 볼 수도 있다. 캐릭터 이름처럼 진정한 ‘예술 동반자’가 되는 셈이다. 이제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거실에서 뜨게 하거나, 양중맞은 비구름을 침실 한가운데 가져와 국지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덴마크 설치미술가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은 자연현상을 AR 작품 ‘분데르카머(Wunderkammer)’로 제작했다. 이 역시 어큐트 아트와 협업해 완성한 것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된다. ‘분데르카머’는 자연물에서부터 예술 작품까지 온갖 진기한 것들을 모아 진열한 컬렉션(박물관의 전신)을 가리키는 ‘경이로운 방’, ‘호기심의 방’이라는 뜻의 독일어 표현이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카오스 아트가 도래할까?

많은 이들이 ‘현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질 것’이라고들 한다. 우리는 이 지면을 빌려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맞닥뜨려 즉각적으로 예술의 역할을 보여준 작가들을 살펴왔다. 반면 포스트코로나와 더불어 인류의 미래와 예술의 방향을 생각하며, 좀 더 깊고 오래 자신들의 캔버스와 싸우고 있는 작가들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30만 명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자연 속에서 격리 기간을 보냈다. 그는 프랑스 매체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페드로 그린 정물화와 풍경화 8점을 선보여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르망디의 눈부신 봄을 선사했다. 함께 공개된 편지에 그는 “바보들처럼, 우리는 자연과의 끈(연계)을 잃었다”고 한탄했다.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역시 페이스 갤러리 홈페이지(www.pacegallery.com/journal/artists-respond-lee-ufan/)를 통해 긴 장문의 철학적 에세이를 게재했다. 그는 5월 26일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속고할 속제를 남겨주기도 했는데,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양상을 가리키는 카오스 이론(혼돈 이론)에 대해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다.

“14세기 유럽에 페스트가 크게 창궐했고 19세기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과학 혁명과 함께 ‘코스모스’와 ‘빛’의 시대가 확장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나는 이번에는 카오스와 ‘어둠’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카오스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여전히 어둠에 묻힌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 덕분에 감성을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 심은택(미술 기획·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레이저 컷로그 레더링 장식의 로틀 스니커즈 가격 미정 **밴디**. 발수 기능 처리한 스웨이드, 나파 가죽, 트라임으로 포인트를 준 테라캡 소재 스니커즈 1백만원대 **로로 피아나**, 월슨 울란 기로스 공식 4볼 1만원, 월슨 트라너티 4볼 캔 9천원 모두 월슨.



사용감이 있는 듯한 빈티지 효과를 낸 워러부 미드톱 캔버스 스니커즈 76만원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뉴스페이스 프린트를 입힌 캔버스 소재 스니커즈를 투명한 메시 케이스로 감싸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한 B23 하이탑 스니커즈 1백35만원 **다음 맨**.

# perfect pairs

서머 시즌, 시원함과 활동성을 겸비한 스타일을 완성하고 싶은 남성에게 추천하는 패션 하우스의 화이트 스니커즈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오렌지 컬러 로고 패치가 경쾌한 나일론 소재 볼 캔 9만원대 **폴로 스포츠 로렌**, 원종 후 최대 22시간 동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솔로 프로(Solo Pro) 무선 헤드폰 디크 블루 모델 35만원 **바이 타타 드레**, 레이스 매듭 대신 스트랩을 조종해 간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메시 소재 스피터 러너(Spitter Runner) 스니커즈 1백13만원 **자랑시**.



어퍼 부분에 광택이 도는 글레이즈드 송이저가죽을 사용한 에베레 스니커즈. 림과 측면에 골드 톤 LV 이니셜 모노그램 플리워를 새겨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1백34만원 **루이 비통**, 스타드 디테일의 청카와 라버 솔을 다한 패브리크 & 나파 레더 소재 락러너 록러너(Rockrunner Plus) 스니커즈 1백12만원 **발렌티노 가바바나**, 에디터 **이해미**

**밴디** 02-2056-9023  
**로로 피아나** 02-546-0615  
**월슨** 1833-4204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티노 가바바나** 02-2051-4652  
**폴로 스포츠 로렌** 02-6004-0220  
**비츠 바이 타타드레** 080-646-0880  
**자랑시** 02-546-2790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다음 맨** 02-3480-0104

이니스프리 조소희



(위부터) 정교하게 직조한 리피아 밴드가 인상적인 크리스털 장식 샌드로 리피아 샌들 93만원 **미우미우**, 신축한 블루 컬러 스트랩이 돋보이는 인코나 에스피드리유 샌들 70만원대 **에르메스**, 목가적 풍경을 담은 트랄 드 주이 캔버스 인솔과 시그처 자수로 장식한 상급 스트랩이 특징인 디 웨이플 96만원 **디올**, 화이트 마블라세 가죽에 새긴 물결무늬 패턴에서 여유로운 감성이 느껴지는 슬라이드 73만원 **구찌**, 부드러운 기프 스킨으로 완성한 인솔의 곡선 실루엣과 시그처 장식이 어우러진 캔자니 슬라이드 75만원 **비토레 파라기모**, 에디터 **이주미**

**미우미우** 02-3218-5331 **에르메스** 02-542-8622 **디올** 02-3480-0104 **구찌** 1577-1921 **살비토레 파라기모** 02-3430-7854

# elegant slide

올여름, 디자이너들은 폭넓은 와이드 팬츠와 버뮤다 쇼츠로 모던하고 우아한 여성상을 제안했다. 이를 더 근사하게 즐기는 방법은 힐이나 무거운 맨달 슈즈보다는 납작한 슬라이드를 매치하는 것!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 color me

오늘의 기분을 컬러로 표현하세요. 기분까지 업시켜주는  
원 포인트 컬러 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 **소매 조세핀 이그레드 링** 조세핀 황후의 헤어 장신구였던 이그레드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조세핀 이그레드 컬렉션. 파아로프 가닛, 핑크 퀴츠, 핑크 사파이어, 아메리칸 등 다채로운 컬러 스톤을 세팅했는데, 그중 핑크 골드 총 0.5캐럿의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버전. 3백60만원. 문의 02-3442-3359 **타피니 T 컬러 T 스케이 링** 기 존 모노톤의 메탈 타피니 T 링에 마더오브펄, 타카이즈, 오톱스 등으로 하이리프트 컬러를 더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중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타카이즈를 세팅한 버전. 가격 미정. 문의 02-547-9488 **피아메 포제션 화이트 칼세드니 오픈 링** 18K 핑크 골드 링 양쪽 끝에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하고 2개의 화이트 칼세드니를 더한 오픈 링. 총 20개의 화려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경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했다. 3백65만원. 문의 02-3479-1802 **부세은 세팅 보헤미안 로돌리트 가닛 스몰 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평온함을 상징하는 투명한 라즈베리 레드 컬러의 로돌리트 가닛을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스몰 링 2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비드윈드링거 링**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풍부한 컬러감과 젊고 경쾌한 감성을 담은 링. 서로 다른 사이즈의 로즈 골드 원형 디스크에 각각 마더오브펄, 밀라키아이트, 사갈라이트를 세팅했다. 두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다. 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가르디에 클래식 드 카르디에 링** 고전적인 우아함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스타일의 조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앙연성을 지닌 클래식 드 카르디에 링. 그중 18K 핑크 골드에 아이리즈나이트를 세팅한 버전.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러 링** 반클리프 아펠의 대담한 컬러 조합과 베를리의 유쾌한 감각을 살린 궁정 에칭 링. 옐로 골드에 밀라키아이트를 세팅했다. 3백만원대. 문의 1668-1906 **에디터 장라윤**

# the story of passion

올봄 스토리 백을 론칭하며 국내 시장에서 탄력을 받은 알렉산더 맥퀸이 배우 전지현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F/W 시즌을 준비한다. 완벽한 테일러링에 열정적이고 도시적이며 실험적인 맥퀸의 작품 같은 아이템들이 기대된다.



배우 전지현이 알렉산더 맥퀸의 한국 앰배서더로 선정되었다. 비할 데 없는 격이 다른 아름다움과 타고난 패션 감각, 그리고 현대성을 추구하는 그녀의 매력에 맥퀸 하우스의 열정과 가치, 도전이라는 키워드와 완벽하게 어우러지기 때문. 국내 첫 앰배서더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다. 그 첫 행보로 2020 F/W 프리 컬렉션 의상 화보를 공개했는데, 영국 아르누보와 예술 수공예 운동, 그리고 모더니즘의 절제된 기품을 담아 힘 있는 실루엣을 표현한 맥퀸의 의상과 전지현의 눈빛, 표정이 어우러지며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대비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탄탄하게 짠 독특한 니트 원피스에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단단한 가죽 벨트, 앵클부츠와 매치한 백은 당연 스토리 백. 올봄 프리 컬렉션에서 론칭한 스토리 백(The Story Bag)의 솔더백 버전이다. 패션 하우스를 상징하는 모던한 메탈 핸들은 조금 더 크게 제작했고, 새로운 웨이브 형태의 체인을 달아 변형을 주었다. 무엇보다 낮에는 솔더백으로, 저녁 외출 시에는 클러치 백으로 사용 가능해 실용적인 것이 매력 만점. 하나의 대형 수납공간, 가죽 카드 홀더와 전면 지퍼 포켓을 갖추어 휴대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 솔더백은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선보인다. 문의 02-6905-3472 **에디터 장라윤**



1, 2 2020 S/S 컬렉션 단품에서는 스토리 백의 스트랩을 아래로 내려 클러치 백 형태로 연출해 시선을 모으는다. 3 메탈 바가 톤보이 는 피크 앵클부츠 1백74만원 알렉산더 맥퀸. 4 레디에이 윙컷 편평 장신을 더한 스토리 솔더백 3백72만원 알렉 산더 맥퀸. 5 스몰프리지 벨트 1백52만원 알렉산더 맥퀸.



모엠텐 플루카너우 오브제트는 모두 독일 출신 목공예 작가 에른스트 캠퍼(Ernst Campen)의 작품.



# Day Dreaming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낭만적 상상이 머문,  
어느 여름 오후의 갤러리. photographed by park jong ha

장소: 협조: 서울역사관 전시실(Objekt: be Beautiful, bei User(이진)

플루카너우는 2개의 플루카너우 원목 테이블은 천연 목재를 사용한 기둥과 인테리어나 스탠드를 선보이는 사무 디자인(Shimoo Design)의 제품. 좌측 테이블 위에 놓인 화병과 우측 테이블에 놓인 물이 놓인 도자기 인상은 본인의 작품.



등이 깊은 파인 리본 타이 디테일 블랙 드레스 가격 미정 1961. 스텔링 실버 후프 이어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뉴 옴티컬 화이트 칼라 바바 빌렛 플랫 슈즈 83만원 산바틀레 데라가모, 화이트 삭스 에디터 소장품.



롱 슬리브를 따라 버튼 디테일을 장식한 화이트 새틴 드레스 가격 미정  
**샤넬**, 카프 레더 앵클 스트랩 샌들  
 1백9만원 **로로 피아나**, 브라스 소재  
 이어링 7만원 **올세인트**

원 전바스 위 3개의 장이 근근히 2시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작품은 이우환의 *Correspondance*(1994, 1990년대부터 모노하 운동의 주요 이론가이자 3D로 촬영하며 개념적 작품을 선보인 이우환은 아예에 존재한다는 타이틀로 그려 남은 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재를 시각화한다. 간결하고 정적인 옹화인 정은 크기, 위치, 확연한 방향에 따라 다른 다른 정 또는 아예와 함께 다의적인 방식으로 조응(*Correspondance*)한다.  
 모넬 오른쪽에 위치한 오브제는 1901년 게인즈(David Gainsborough)의 작품(2017).



웨이스트 라인과 커프스를 볼륨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실크 라틴 드레스 3백20만원대,  
 리운드 버클 벨트 1백만원대 모두 **로로 피아나**, 셸 당크르 링크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스틸링 실버 네크리스 가격 미정,  
 인순 약지에 착용한 에르메스 헤몽스 컬렉션 실버 링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스**, 크림색 니하이 부츠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즈먼**.

회보 조복에 위치한 오브제 중 위쪽에 차 반에는 프랑스 도예가 신비 앙제베(Sylvie Eyraud)의 작품(2019), 두 번째, 세 번째 오브제는 각각 제니 리(Jennifer Lee)(2017), 파스칼 우레(Pascal Oudet)의 작품(2019).

살기 쉬운 소재와 풍성한 드레이프가  
조화를 이루는 네이비 드레스  
가격 미정 **스포트박스**, 셸 앙크르  
팬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레더 콜라츠 디테일 V넥 실크 드레스  
6백만원대 **토즈**, 태일리밍을 장착한  
독특한 구조감의 슬리브가 돋보이는  
화이트 재킷 72만원 **YCH**, 자유롭게  
레이어드해 연출할 수 있는 롱 네크리스  
13만원, 빈티지한 미감 자리가 돋보이는  
후프 이어링 7만원 모두 **올세인츠**,  
블랙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모텔 모먼트에 위치한 나무 좌대 위 오브제는 **에른스트 캠퍼(Ernst Campen)**의 작품(2020).



모델의 실루엣이 비친 액자 속 그림은 영국 단색화의 가장  
장성파의 **Johned** **#888** 2008-3-7(2009).  
장성파는 두꺼운 물감을 바른 화면을 시간적으로 구획하고  
이름을 새겨서다가 다시 물감으로 덧칠을 해서 **인본주의** 장사된  
공간을 추구하는 독특한 스타일 세계를 선보인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발신이 돋보이는 최화는 한국의 대표 추상 작가 오수환의 **Verakoni**(2013, 작:는 40x60)는 시간 동안  
동양적인 장사 기구 추상화 장면을 펼쳐냈다. 붉은 캔버스에 흰색이 채운 그림은 마치 붓글씨 같기도 하고, 실험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잘게 다져갈이 돋보이는 비스코스  
소재 옐로 드레스 4백5만원,  
패딩 자판한 인트레치아토 장식 BV  
보드 신들 1백91만5천원, 가죽과  
메탈을 엮은 후프 아이링 66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굿채쿠에 착용한  
아이커피 가격 미정 **트렌카디움**.



섬세한 것들과 자수 장식 드레스  
가격 미정 **지형사**, 달 모티브와  
브랜드 이니셜을 형상화한  
옐로 골드 아이링 70만원 **골든듀**.

모델 **우스티나(Ustyna)**  
헤어 **조미연**  
메이크업 **김부성**  
어시스턴트 **조소희**  
에디터 **이혜미**

**루이 비통** 02-3432-1854  
**포초 1961** Ports1961.com  
**살버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로로 피아나** 02-546-0615  
**스튜어트 와이츠먼** 02-546-0955  
**스포트맥스** 02-511-3935  
**에르메스** 02-542-6622  
**올세인트** 080-801-7070  
**토즈** 02-3438-6008  
**YCH** 02-788-6202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트렌카디움** 02-512-5341  
**지형사** 02-546-2790  
**골든듀** 1588-6576

캔버스 가득 물 향미미를 그려 실은 최화는 사형학이 생명의 Kama 2020-10(2020). 작가는 수식 번째 이트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실제 조각의 같이 미세한 균열이 존재하는 표면 장력을 완성한 뒤 얇은 옷과 동양화 물감으로 수업을 그려낸다. 유익 표면에 얇게는 실험은 컬러지크 아이치버 걸렸다(아다메이) 다시 인노는 우리의 인연을 풀었다.  
모델 등 뒤에 위치한 오보체는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볼(Thomas Bohle)의 작품(2019).

# cooling therapy

강렬한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인한 피부 온도 상승은 모세혈관 확장, 탄력 저하를 동반해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여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쿨링! 강렬한 열기에 지친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진정시켜줄 스킨케어 제품을 선별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텔 오일 알미네이터 시안 컨트롤** 바르는 즉시 시원함이 느껴지는 콜링 미스트. 카탈로니아산인 성분인 피부 표면의 과잉 피지와 땀을 흡착해 모공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충분한 수분감을 부여한다. 125ml 2219천원. 문의 080-822-3322 **프래쉬 로즈 플로럴 토너**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다 디아스크 로즈 워터에 오일 추출물, 알로에베라 겔, 섀도우 오일 등을 더해 콜링·리프래시·보습 효과까지 제공하는 미스트 타입 토너.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를 정돈하는 용도로 물론 메이크업을 밀착시키기 위한 부스터, 픽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 250ml 5217천원. 문의 080-822-9500 **리쉬 마스크 오브 매그나민트**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하기 좋은 워셔프 타입 마스크 팩. 멘톨 성분을 함유해 피지 분비 조절, 항염·항박테리아 효능이 뛰어난 페퍼민트 오일, 피부 재생 및 진정 효과를 지닌 메리골드 오일,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달맞이꽃 씨앗과 팔 등의 원료를 담았다. 얼굴과 몸 등 원하는 부위에 충분한 양을 도포해 5~10분간 방치한 후 가볍게 마사지하면 된다. 125g 4만원. 문의 1644-2357 **프래쉬 뷰티 엘릭시르** 로즈메리·페퍼민트·장미꽃 오일 등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미스트. 즉각적인 콜링과 리프래시 효과, 모공 타이트닝과 피부톤 정돈, 윤광을 부여하는 레닌스 효과와 피부 톤, 메이크업 픽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활용도가 높다. 특히 메이크업 브러시나 파우더 분사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더욱 고르고 밀착력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00ml 5219천원. 문의 02-6011-0212 **닥터리드 블레미쉬 클리어 픽 수딩 팩**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병용 추출물을 80% 함유한 부드러운 시트 타입 팩. 촉촉한 에센스를 듬뿍 머금은 클링링 시트\*가 피부의 열을 즉각적으로 흡수·방출하고 각종 유해 성분과 수분을 공급해 열 자극을 15%\*량 감소시킨다. 130cm(70cm) 2만5천원. 문의 1811-9415 **이슬 아미노에이츠 모이스처 페이스얼 하이드 로졸**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상쾌한 향의 보습 미스트. 디아스크 로즈 오일, 캐비아일 오일, 베르가모트 열매 오일이 스트레스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을 가라앉힌다. 얼굴과 목 부위에 충분히 분사한 후 자연적으로 건조시켜 사용한다. 60ml 321천원. 문의 1800-1987 **에디터 이페미**

# editor's Pick

강렬한 태양처럼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구현해줄 서머 뷰티 에센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츠힐러 치즈 뉴트리션 엘라스틱 마스크** 치즈를 얼굴에 얹어 특유의 끈끈한 질감이 날 것 같이 살짝 거꾸리가 붙었다면, 쉼은 걱정이었다. 독일산 치즈 치즈의 프티와 노의 비티민과 쉼 붙어 부드럽고 끈적끈적하게 달아낸 엘라스틱 마스크. 요즘 주말 캠핑에 시들해진 메이크업 피부를 충전해 줘야겠다. 28gX10매 321천원. 문의 02-755-4989. *by 에디터 정리운*

**입생로망 뷰티 푸우 볼링메 세안 #147** 입생로망 뷰티의 고급스러운 피마편트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코올에서 영감을 얻어 깊은 누드 컬러를 담았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무개념 없이 촉촉하게 밀착되어 맑은 색을 부여해 여러 번 덧칠해도 부담 없다. 3.2g 421천원. 문의 080-835-0089. *by 에디터 이주이*

**디아스 코랄** **해이 스트레이너** 반쯤은 오일의 에피타피 만만 인생 스트레이너. 15%의 연으로 이뤄진 콜라겐 플라스마가 피부에 모이게 하는 열도 스킨케어 기능이 더해져 모공이 작아진다. 완중 후 30분간 우선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브도 165C, 185C, 210C 중 원하는 온도 맞춰 사용하는 데 단 몇 초에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했다. 592천원. 문의 080-300-4253. *by 에디터 이혜미*

**엘리브 듀얼 앰플 크림** 평소 바르는 기초 제품의 개수를 확 줄이면서도 기쁨과 신맛한 피부를 만드는 것이 여름 뷰티의 미션. 이 제품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영물 오일과 영양 보습 크림을 하나에 용기에 담았다. 30°C가 넘는 요즘에는 아른저녁이 두 가지로 기쁨은 충분하다. 앰플 0.27X60ea, 크림 50ml 721천원. 문의 02-543-0509. *by 에디터 정리운*

**샤넬 르 베르니 745 크루즈** 지중해 연안 프랑스 리비에라 자연의 따스로운 태양 빛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으로, 생기 넘치는 코랄 컬러가 기본 좋은 에센스를 전했다. 한 걸만 발라도 비침 없이 발색이 좋고, 스킨에 착 달라붙는 슬라임 텍스처가 재주 없는 손도 흔들림 없이 비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13ml 321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주이*

**나스 퀴드 아이세도우 #오라가름 X 네 가지** 관능적이고 강렬한 딥 컬러 핑크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퀴드 아이세도우.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손으로 쓱쓱 바르면 간단히 선명한 발색을 구현하는 간편한 사용으로 나츠클 메이크업으로 출근했다. 이 제품 하면 저녁 데이트를 위해 아델로 매혹적인 분위기로 단번에 변신할 수 있다. 1.2gX4 621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주이*

**라파르 스킨 캐비아 퍼펙트 컨실러** 눈가 처짐하면 유독 피곤해 보인다. 열이 들는 것 같다. 메이크업 한테 보며 피부에 영양과 보습, 탄력까지 주는 컨실러를 찾던 중 만나게 된 일고 쓰는 라파르의 신제품. 링을 돌려 알맞은 양을 덜어 내 눈가 안쪽과 눈물샘 부분에 점을 찍는다. 살린 바디를 눌러 알맞은 브러시를 꺼내 눈가 안쪽과 눈가 아래를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한 후 다투 손가락 끝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6ml 221천원.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정리운*

**리츠 힐러 알팔렉 샴푸** 새치와 백모를 케어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러운 컬러로 가꾸준다. 감성적인 향과 노화우를 덜어 더 민중이 가는 제품. 민감한 두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선호하게도 좋다.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40대 중반으로 향하는 에디터도 믿고 사용하는 중이다. 450g 421천원. 문의 02-344-0209. *by 에디터 정리운*



\* 정리운(02-621-1212), 이혜미(02-621-1212), 이주이(02-621-1212) \* 박정연(02-621-1212)

이시은(02-621-1212)

# SHOWROOM

LIFESTYLE



**시몬스 이천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 창립 1백50주년을 맞아 성수동에서 먼저 선보인 초대 없는 팝업 스토어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를 오는 7월 8일부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타라스에 오픈한다. 고객들에게 색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기와 기획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로, 패션 아이템, 다이닝 웨어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JEWEL&WATCH



**블랑팡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티**  
70s 1970년대 등장한 이리비이숫자 인덱스와 요일창, 3시 방향에 날짜를 표시하는 대담한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 3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과 요일창 등 1970년대 모델의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스트랩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앤디크 가죽, 세일 캔버스, 나토 스트랩, 스틸 브레이슬릿, 47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67-8426



본진 하이드로르네스트 그린 컬러 블루, 그레이, 블랙 모델에 이어 새롭게 출시하는 그린 컬러 하이드로르네스트 워치. 다이얼 컬러와 세라믹 베젤을 카키 컬러로 통일했다.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다이빙 워치로 300m 방수, 단방향 회전식 베젤,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백 케이스, 크라운 프로텍션, 이중 안전 롤링 잠금장치 및 다이빙 인스텐션 기능을 갖추었다. 카키 컬러와 밝은 그린 컬러, 27지로 출시한다. 문의 02-310-1597



**토즈 메리제인 블로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소녀풍 메리제인 블로퍼를 선보였다. 화이트와 블랙을 매치한 버전과 레오파드 패턴, 송치 & 블랙 컬러를 조합한 버전, 총 2가지로 선보이며 메탈 버클에는 브랜드 로고를 각인했다. 편안함을 위해 뒤축이 있는 메리제인 스타일의 플랫 로퍼도 7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02-2438-6008

**로저 비비에 비브 클로즈** 생동감 넘치는 1960년대 여름 날의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비브 클로즈 물은 나뭇잎 무늬 소재로 제작해 시원하고 편안하다. 발등을 편하게 감싸주는 조절 가능한 가죽 밴드에 브랜드의 아이코닉 비브 클로즈 지리 접은 미니어처 브로시 버클을 더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드레스나 테일러드 슈트는 물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잘 어울린다. 문의 02-6905-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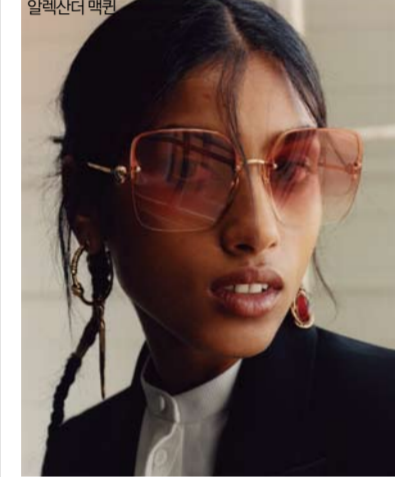
**보스 맨 썸머 홀리데이 슈트 록** 종이처럼 가벼운 무게와 질감을 자랑하는 페이퍼 터치 코튼 소재 재킷은 안감을 추가하지 않아 통기성이 좋은 여름 재킷으로, 시원한 아우어 컬러와 산뜻하다. 같이 매치하면 좋은 트라우저는 재킷과 같은 소재와 컬러이며 딱 떨어지는 핏으로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하기 좋다. 문의 02-515-4088

**앨버리 달리 벨트 백**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포스트맨 잠금장치가 돋보이는 달리 벨트 백은 가벼운 무게와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특징인 미니 백이다. 스트랩 길이를 조절해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메 미니 숄더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또 탈착 가능해 클러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2-2018-1400

**오메가 리서치 아이웨어** 스퀘어 스타일로 여성스럽고 레트로한 감성을 극대화한 리서치 아이웨어, 따뜻한 색상 차림 빛나는 핑크 골드 메탈릭 프레임과 클래식한 플루티드 테, 작은 물결 패턴을 장식한 템플 팀이 돋보인다. 프랑스 리비에라의 옛 영화배우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 현대적이면서 우아하다. 문의 02-511-5797

**자형시 스펙터 라인** 새로운 스펙터 라인인 27지 컬러의 백팩과 범 백, 화이트와 블랙 스니커즈로 구성된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실용성을 두루 갖췄다. 그중 스펙터 백팩은 V자형 트라이미 디테일과 로고로 장식한 지퍼가 포인트로, 청량한 블루 계열 컬러가 매력적인 제품이다. 수납공간이 넓고 노트북을 넣기 좋은 오픈 포켓을 더했으며, 앞부분에는 미니 포켓

**알렉산더 맥퀸 주얼 스킵 선글라스** 하우스의 중심을 이루는 쿠티르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주얼 스킵 선글라스. 강렬하고 깔끔한 무테에 섬세한 크리스탈 장식인 시그니처 주얼 스킵을 더했다. 둥근 프레임과 사각 프레임 버전이 있으며, 색상은 블랙, 브라운 등 총 4가지로 구성했다. 문의 02-6905-3472



FASHION

**데코르테 컴포트 데이 미스트 셋** 앤 프로젝트 모이스처 성분 덕분에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며,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고정시키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메이크업 픽서. 아로마틱 시트러스 그린 플로럴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져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림감이 좋은 원형 디자인과 산뜻한 핑크 컬러 패키지로 구성했다. 문의 080-568-3111

**리프레리 스킨 케어 파택트 컨실러** 엑스클루시브 셀룰라 콜로이드 케어이 추출물과 케어이 워터가 눈가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주고 탄력과 피링 개선을 돕는다. 물론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피부 결점을

을 보완하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는 컨실러의 기본 기능도 담았다. 문의 02-511-6626

**리프레리 스킨 케어 파택트 컨실러** 엑스클루시브 셀룰라 콜로이드 케어이 추출물과 케어이 워터가 눈가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주고 탄력과 피링 개선을 돕는다. 물론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피부 결점을

을 보완하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는 컨실러의 기본 기능도 담았다. 문의 02-511-6626

**리프레리 스킨 케어 파택트 컨실러** 엑스클루시브 셀룰라 콜로이드 케어이 추출물과 케어이 워터가 눈가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주고 탄력과 피링 개선을 돕는다. 물론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피부 결점을



BEAUTY

# Mingling & Collision

이질적 집단들이 교류를 하면 서로의 역량이 융합되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빛어진다. 이른바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탈리아 피렌체를 기반으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등 전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메디치 가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문은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과 재능을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등을 적극 지원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지금도 회자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화려함 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탤만큼 집적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문성이 넘칠 만큼 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듯 하나의 재능만 갈고닦는 데도 꽤 오랜 시간과 공이 요구된다. '융합형 인재'를 부르짖지만 실상 폭도 넓고 깊이도 자닌 전문기를 배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저마다 '주 무가'가 다른 인재들이 모여 각자의 재능과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함께해야만 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크루 컬처'가 문화 예술계에서 부쩍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그룹을 결성하기도 하지만, '해쳐 모여' 식으로 원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하는 방식이나 과정뿐 아니라 그 작업에서 찾아낸 결과물도 경계를 뛰어넘는 매력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는 '우연한 충돌' 속에 피어날 창의성의 신물인 셈이다. 이번 'Art+Culture' 스페셜호에서는 21세기의 스타일과 패자로 자신만의 '네오 르네상스'를 일구려는, 경계를 넘나드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그처럼 의미 있는 '섞임'과 '충돌'이 이루려는 영감 넘치는 공간도 소개한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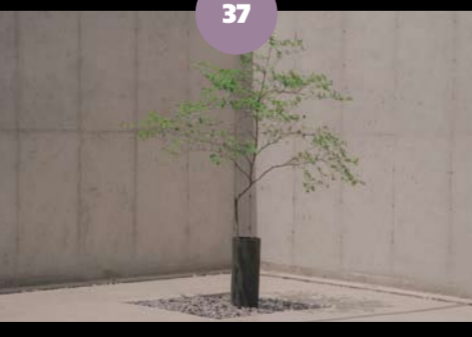
33



32



38



37



34

# Power of 'Crew Culture'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고단한 숙명의 예술가들. 이러한 독자적인 작가 정신은 이들을 일컫는 대명사였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과 목적이 비슷한 예술가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프로젝트 팀, 아티스트 컬렉티브, 크리에이티브 그룹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는 예술가 집단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소위 크루 문화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흐름은 과거 힙합 신에서 래퍼들에게 비트를 만들어줄 프로듀서가 필요하고, 무대에서는 완성된 비트를 틀어줄 DJ가 필요하기에, 음악적 취향과 방향성이 잘 어우러지는 몇몇이 모여 하나의 무리를 형성한 것에 빗대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섞임 속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예술가 집단을 만나본다.

GET TOGETHER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융·복합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영역 간 경계를 허물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더 이상 낯선 경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예술계에서도 젊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특정 장르와 영역에 얽매지 않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 집단이 여럿 등장하고 있다. 물론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소수의 스타를 앞세우고 다수가 익명으로 존재하는 공동 창작에 가까웠던 과거의 시도와는 달리, 오늘날의 모습은 각자의 개성과 전문성을 드러내고 키우는 동시에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분야나 장르의 경계 없이 집단의 능력을 집중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에 가까워 보인다. 이들은 마치 자유롭게 뒹군다 흩어지기도 하는 제2의 밴드나 힙합 크루처럼 개인의 작업이 서로의 영감이 되어주고, 공백을 채워주기도 하는 협업 활동을 선보인다. 이에 팀을 결성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해체하며 모여 스스로의 요구가 맞을 때만 뭉쳐다가 기차 할 일을 하기도 한다.

기령 아르바이트 코스모스는 손현선, 윤지영, 장서영, 3명의 작가가 협업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단체를 다루는 윤지영과 비디오 작업을 주로 하는 장서영,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손현선은 각기 다른 매체로 작업하다가, 특정 공간의 장에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또 국내외 팬들을 갖춘 인기 그룹 핵오 밴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명한 다다이즘 클럽은 포토그래퍼와 비디오그래퍼, 디자이너로 구성된 집단으로, 이들 역시 각자 전문화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스트리트 감성을 담은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가 집단의 형태를 넘어, 서로 다른 크리에이티브가 모여 회사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공간 디자이너와 그래픽 디자이너가 힘을 합쳐 결성한 텍스처 온 텍스처의 경우, 인테리어부터 소규모 브랜드, 사진 작업, 출판, 전시, 아트 스푼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보를 보여준다. 이 그룹은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가 자체 기아콘으로 문을 열었을 때 개관전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당시 주말에 수천 명이 찾은 정도로 성공적인 모객에 공헌한 주 원동력이었다.

혹자는 창의성만 곧 '재결합'이라고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래된 스펙과 만나 우연처럼, 필연처럼 참신한 통찰력을 낳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여러 분야를 융합적으로 엮어내는 식으로 영역을 만들고 확장해 가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요즘 예술계의 젊은 풍경은 인연에 초점을 맞춘 협업적 가치가 엮여 호환된 면이 있다. 우연한 방식의 공동 창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나 해도 미리 수업을 걱정하기에는 시도만으로도 가치 있어 보인다. 배경이 서로 다른 작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를 넘나드는 새로운 창작물들을 선보이는 4명의 예술가 그룹을 소개한다. 글 김현경(크리에이티브) Edited by 고성현



1

흔히 순수예술로 일컬어지는 '아트(art)'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기술'에 가까운 어원을 지니고 있다. 라틴어 아르스(ars)와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é)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인문학적 지식에 기반한 전반적인 예술 분야와 그것을 구현하는 숙련된 기술을 아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가 뒷받침되는 '수공예'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단순히 2차원의 시각예술뿐 아니라 작품을 담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브랜딩해야 하는 이 시대에 저마다 주 무기를 지닌 인체들의 만남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장르의 경계를 시원히 넘나들고 프로젝트마다 자유롭게 인원과 구성 등을 달리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툴보이(Tooboy)가 창출해내는 시너지는 절로 오감을 즐겁게 하기에 더 없이 깊다.

## TOOLBOY



2

1, 2 차분 롯데갤러리의 정실 에뉴얼에서 열린 전시 (Learning Process). 툴보이가 작품과 공간 기획, 연출을 담당했다. 사진 제공 롯데갤러리 3 툴보이 메인 멤버, 왼쪽부터 그래픽디자이너 유익 프로듀서 이토(Ato), 가구·인테리어 디자이너 케웨일(K. Whale), 미디어 영상감독 세르지오(Sergio). 사진 제공 서울산업진흥원 4 노들섬에서 열린 스트리트 캠퍼 플랫폼 올드타운 WTFM 전시(2019). 툴보이가 공간 기획, 연출을 담당했다. 사진 제공 WTFM 5 이토, Toolboy Lights(2020), neon, 100x60cm. 사진 제공 롯데갤러리 6 그래픽디자이너 칸테이너 박스에는 툴보이의 예술적 재료가 되는 작은 오브제부터 가구, 오브비, 대형 물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료가 도구로 들어 있다. 사진 제공 서울산업진흥원



3



4



5

### 미술과 디자인, 인테리어와 설치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출가 집단'

재기 발랄하고 직관적인 명칭부터 이름의 절로 끄는 툴보이. 2년 전쯤 미술과 디자인, 가구와 인테리어, 미디어와 공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결성한 이 크리에이티브 그룹은 전시와 페스티벌 같은 공간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품 디자인부터 가구·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툴보이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 교란 작전에 투입된 연합군 제23 특수대 고스트 아미(Ghost Army)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다수의 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무산통신사,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고스트 아미는 기발한 특수 효과로 독일군을 교란한 일종의 연출가·예술가 부대였다. 각각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공동 교란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가구·인테리어 디자이너 케웨일(K. Whale)과 그래픽디자이너 유익 프로듀서 이토(Ato), 미디어 아트·프로젝션 맵핑을 담당하는 세르지오(Sergio)를 중심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 페인터, 건축가, 목공 장인, 시대별 회화 아이템을 수집하는 이카비스트, 천체 해커, 프로그래머 등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멤버 수십 명이 모여 있는 툴보이는 평소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프로젝트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모여 공동 작업을 한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조조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대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간다. 유엔계몽주의는 그룹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서는 결코 모든 걸 잘해낼 수 없거든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향한 도전

소유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진 문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아트'는 가장 크게 각광받는 체형 경제의 총아 중 하나다. 더욱이 다양한 인접 장르 간 경계와 역할이 점차 희미해지고, 순수 미술과 상업 문화, 서브컬처 등의 위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니 아트의 보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툴보이는 아트와 디자인, 갤러리와 스트리트 등의 미완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특정한 장르와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섞임에서 오는 새로운 긴장감과 시너지를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담는 것을 작업의 모토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아트 페어인 아트부산이 열린 기간에는 영화의전장에서 인상적인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우와와 매트리스, 조영, 토이 등 이상의 가구와 오브제가 해체·재조립되고 다채로운 그래픽티로 덮인 풍경을 통해 본래의 쓰임과 형태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해방의 장사를 보여준다는 툴보이가 속한 에이전시 이름인 WTFM(What the Fun Man)으로 참여, 이들은 하얀색 입방체(white cube)를 무리로 펼쳐진 전형적인 갤러리의 전시부터 소셜 커뮤니티 공간이나 패션 브랜드 매장을 비롯한 여러 상업 시설의 공간을 기획하고 브랜딩할 때도 즉흥적면서도 강렬한 드로잉과 그래픽티, 독특한 설치 작품 등을 통해 툴보이의 낭만적 아이디어의 흔적을 남긴다. 국내외 갤러리와 미술관의 울타리를 넘어 다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FnC 코요태, 뉴발란스, NBA, VANS, KREMER 등)을 비롯해 어반 스트리트 캠퍼 컨벤션(WTFc, 2019) 등 여러 방면에서 신선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툴보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글 김현경(크리에이티브) Edited by 고성현



7



# BANDBOWER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캡처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소셜미디어 시대. 인스타그램에만 하루에 약 40억 개의 이미지가 포스팅된다는 요즘, 일정한 틀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통해 정보가 직관적으로 전달되다 보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시각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삶은 본질적으로 모든 감각의 총합,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네 일상에서 소외된 감각을 제대로 소환할 수 있을까. 3인조 크리에이티브 그룹 밴드바우어(Bandbower)의 고민과 아이디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연결한 MZ세대의 특별한 조합 조건결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들여다보다가 새로운 만남이 이뤄지기도 한다. 말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이른바 MZ세대에 속하는 고요순(Goyosun), 샤이 아시안(Shy Asian), 승택(Seungtaek)으로 구성된 밴드바우어도 그렇게 탄생했다. 2년 전쯤, 이들은 인스타그램상에서 서로의 취향과 결을 관찰하다가, DM으로 연락해 만남을 가졌다. 조각과 설치미술을 전공한 고요순, 싱어송라이터 샤이 아시안, 무대 디자인을 공부한 승택은 서로의 나이와 출신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라는 누구나 20대에 한 번쯤은 고민할 법한 공통의 질문을 안고 1여 년 동안 매일 소통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며 힘을 맞추다가 지금의 그룹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밴드바우어라는 이름은 승택이 오래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배우어새(bowbird)의 특성에 영감을 얻었다. 이 새는 알칸을 유혹하기 위해 무려 10개월을 걸쳐 자신이 물어온 집둥 사니, 이를테면 열매와 꽃, 풀잎과 나뭇가지 등으로 맛있게 동자를 꾸미는데, 이 장식물이 마치 자학의 개성과 예술성을 지닌 창작품 같다고. 밴드바우어가 추구하는 방향 역시 각자 고유의 예술성을 유지하면서도, 협업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기에 배우어새와 닮았다고 할 수 있다.

## 사운드를 통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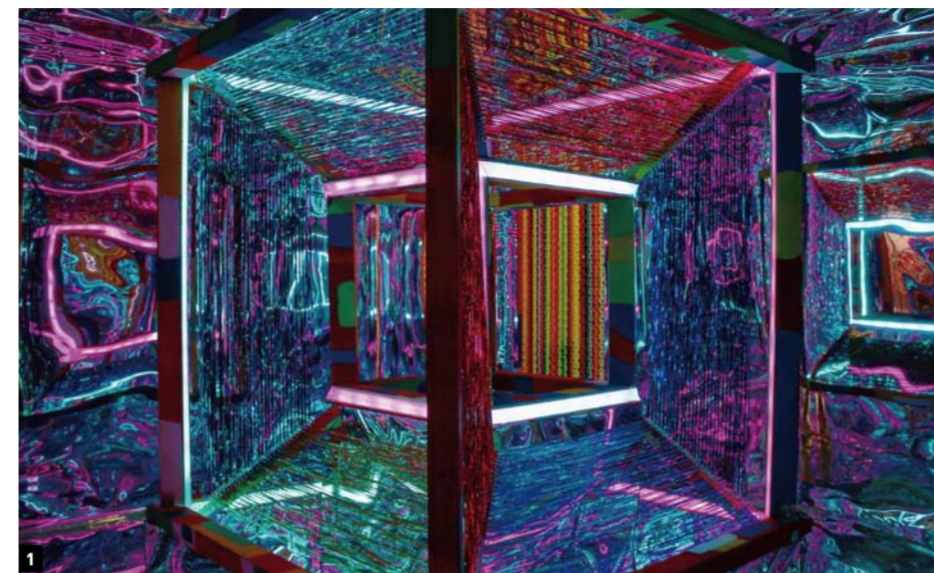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준, 실재를 능가할 만한 시간의 폭과 구체성을 지닌 다양한 경험은 오히려 시각을 제외한 어떤 감각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소외된 감각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밴드바우어는 요즘 특히 '소리(sound)'에 관심을 갖고 공동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사실 필자가 그들의 작업 세계를 접하고 끌리게 된 계기도 바로 '사운드'였다. 지난해 서울 상수동 거리를 지나다가 화변인 스모그에 뒤덮인 전시 공간을 보고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갔다. 흐린 사이사이로 다양한 조각적 형태의 설치물과 전자오ργαν, 전자타 등기 펼쳐져 있는 공간. 누군가 살며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편히 앉아 소리를 감상해보라고 하기에, 간만에 옷깃 소리에 집중했다. 유리구슬이 떨어져 어딘가에 부딪는 소리,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물이 길을 찾아가는 소리, 바람과 풍경 소리 등 다양한 사물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공기의 흐름이 '소리'로 다가왔다. 이렇듯 밴드바우어는 자체 제작한 악기 오브제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치와 영상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함께 구성한다. 그렇게 하나로 규정짓 수 없는 풍경이 되어 관객에게 다가간다. 감각의 증폭을 위한 오브제로 구성된 공간에서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스며드는 소리를 접하노라면 머리로 이해하는 예술이 아니라 감각을 건드리며 예술을 경험하게 된다. 밴드바우어는 지난해 현대미술 전시 공간인 플랫폼폼에서 실시한 다인 예술 분야의 기획 공모에서 최우수 작가 힘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전시마다 라이브 공연을 통해 소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험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밴드바우어의 작업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을 바탕으로 한 우리네 삶을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으로 표현하는 게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1 밴드바우어(Bandbower), 자체 제작을 위한 전시 공간 플랫폼폼에서 열린 전시 (Birds Eye View). 2 밴드바우어, 360도로 회전하며 빛의 반사율 이용해 눈발의 영동함을 표현하는 조각 오브제. 3 밴드바우어 멤버들. 왼쪽부터 조각·설치미술가 고요순(Goyosun), 공간 연출가 승택(Seungtaek), 싱어송라이터 샤이 아시안(Shy Asian). 4 지난 5월 퓨처소사 아트에서 열린 전시 (중명春夢). 5 밴드바우어, 전시 (중명春夢). 6 밴드바우어, 분수가 나오는 시운드 오브제. 1~6 사진 제공 밴드바우어



한 편의 연극을 본다고 상상해보자. 지정된 좌석에서 무대 위 배우들이 움직이거나 와치는 데서, 그리고 스텟치는 이미지에서 우리는 눈과 귀를 한껏 고정한다. 그 순간 보고 느끼는 건 단순히 장면의 연속이 아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연출가가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위 현실을 맞닥뜨리고, 극장 안에서 내뿜는 에너지를 공유한다. 이렇듯 무대와 관객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경계와 거리감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젊은 크리에이티브 그룹 308아트크루(308 Art Crew)는 그 경계를 최대한 벗어나 감각적인 것의 온전한 경험을 꿈꾸는 이들이다.



1 308아트크루, Tesseract(2018), square timber, led light, spangle, mirror film, 800x600x250cm. 2 308아트크루, 달마시안 책아기(2019), square timber, fairy tale books, led light, beam projection, 600x600x600cm. 3 308아트크루, Individual(2019), square timber, aircap, plaster figure, led light, 350x350x250cm. 4 308아트크루, 기쁨동 33-130(2019), 재킷속 33-130(2019), 재킷속 대상 단독주택, 수상 페인팅. 5 308아트크루 멤버들. 왼쪽부터 모델링·아트 디렉터 이신호(Cinco), 뉴미디어 아티스트 안승(Winnin), 음향·아트비스트 최용호(Yongkie), 조명·기획을 맡은 강대경(Glanz), 조형사 박형우(Woopac). 1~5 사진 제공 308아트크루

# 308 ART CREW

연극계 출신 5인조, 미술계에 당찬 도전장을 던지다  
 웬지 모르게 이들 그룹과 비슷한 분위기와 외모를 지닌 남성 5인조. 그렇게 한 우리로 사이 좋게 등장한 308아트크루의 첫인상은 경쾌하고 재기 발랄했다. 조명·기획을 맡은 강대경(Glanz), 조형사 박형우(Woopac), 모델링·아트 디렉터 이신호(Cinco), 뉴미디어 아티스트 안승(Winnin), 음향·아트비스트 최용호(Yongkie)는 모두 같은 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다소 놀랄게도 미술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들 중 한 명이 4년 전쯤 독일 유학을 떠나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던 차에 우연히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그것이 308아트크루의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 공모전에 당선된 직후 서울을 자바로 위치한 예술계 신생 공간 오브(O)에서 열린 전시에 출품하게 된 것. 당시 강대경, 이신호, 박형우, 3명의 룸메이트가 자신들이 지녔던 방 번호를 붙여 '308아트크루'라고 이름 짓고, 감각스러운 운명처럼 미술계에 뛰어 들었다. 종합예술 장르로 통하는 연극계 출신인 만큼 308아트크루의 구성원들은 무대미술, 미디어, 조명, 영상, 연출 등 여러 스태프 부서에서 깊고두은 노하우가 남다르다. 이들은 처음 손잡았을 때도 영상, 연출, 배우 등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연극계 특유의 집단주의와 강한 위계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지지 못한 표현의 욕구와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기투합했다. 구성원 모두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고, 자학의 개성을 담아내면 서로 창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청색을 향한 열정,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민족이 작업의 주된 동인이었다. 예상외로 꽤 많은 대중과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어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다는 308아트크루. 이들은 지금 겪고 있는 작업의 매 순간이 자신들의 색깔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 시각보다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적 공간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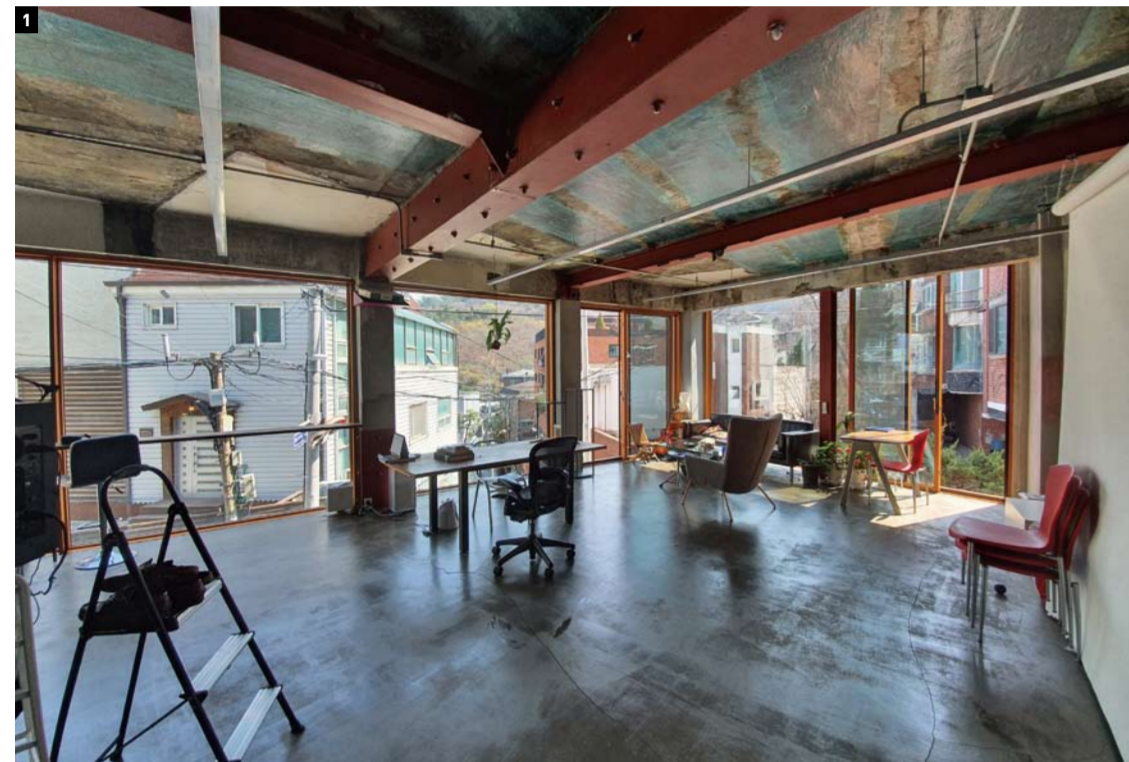
연극은 무대 위 행위자인 배우와 무대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수용자인 관객의 관계가 단방향성을 띠는 장르다. 308아트크루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걷어내고 작품과 관객 사이에 다차원적 감각의 체험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몸의 감각을 깨우는 체험적 공간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다. 관객이 공간을 이동하는 동시에 따라 보이는 이미지와 소리, 향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미지로 넘쳐나는, '시각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지도 모르는 오늘날의 전시 환경 속에서 308아트크루는 오픈된 공간을 직접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체험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는 아마도 현장성, 일화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시간적 예술인 연극을 경험했던 308아트크루에 깊이 새겨진 공명의 정서성이 아닐까 싶다. 공간 설계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사인지 최근 308아트크루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극단에서 투자인이 전시 공간 전체를 기획하는 프로젝트(Blooming Land', 2020. 6~10, KOTT)를 진행하는 등 부차원적 창작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08아트크루는 작년 중국 사면(Xiamen)에 있는 파워 롱 아트 센터(Powerlong Art Center)의 개관자인 (One if by Land)에 최연소 한국 작가 그룹으로 참여해 해외 활동에 대한 첫전에도 그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만 20여 개의 크고 작은 그룹전에 참가했을 만큼 비평 행보를 펼쳐온 308아트크루. 이들 5인조는 요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작업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모인다. 지난 무대의 완공을 넘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협력적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더 예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댄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 Pil-Dong FACTORY

중세의 길드나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들의 공방을 뜻하는 보테가(bottega)부터 오늘날과 같은 개인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이틀리'라고 일컫는 작업 공간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 가장 오래 머무는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주변인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구심점이다. 지난해 서울 중구 필동에 들어선 박경근 작가의 스튜디오는 옛 시대처럼 사제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친분으로 얽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간의 협업'을 이뤄내고 작업의 시너지도 추구하는 특별한 장소다. 또 마치 작은 보테가처럼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매장도 있다. 예술가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한 공간에 모여 창조적 역감과 현장의 테크닉을 교류하는 '필동 팩토리'를 소개한다.



## 창조적 관계를 만들고, 그 의미를 더해가는 공간

서울 남산 북쪽 기슭 아래, 필동의 어느 오르막길 끝자락. 가리는 데 없이 탁 트인 유리 통창, 외벽의 그레피티가 인상적인 3층 건물이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 박경근 작가가 지난해 문을 연 필동 팩토리, 박 작가의 거주 공간이자 작업실, 그의 친구인 가구 디자이너 조재원 작가의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가구 쇼룸 씬 컬렉티브(SOME Collective), 그리고 다양한 설계를 만드는 제작소 이주정립기계가 사이좋게 들어서 있는 곳이다. 원래 박경근 작가는 을지로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으나, 일대가 합지로라 불리면서 입차료가 점차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업실을 새로 꾸리기 위해 동네

를 물색하다가 필동에서 지금의 공간을 발견했다고 한다. 6개월가량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3층 건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는 이 공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 피트너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을지로 정갈하게 장인 승병의 대표와 2년 전 만나 친분을 쌓아온 조재원 디자이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송 대표와 조 작가는 예산의 한계로 우선순위에 서 밀려 채우지 못한 건물 구성구석을 자마다의 개성이 묻어나는 조정 연어로 채우고 다듬었다. 레노베이션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는 따로 있었지만 이들 역시 철재, 목재를 다루는 자신들의 전문 역량을 슬기롭게 보탬 것.

1 박경근 작가의 필동 팩토리 2층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 Courtesy of the Artist 2 필동 팩토리 전경. Courtesy of the Artist 3 박경근, 'Cathedral'(2013), inkjet print, 110x164cm, 상공 제일 영상 작품, '철의 꿈'(2014)에서 파생된 사진 시리즈 중 하나. Courtesy of the Artist and CHOI & LAGER Gallery 4 조재원, T, Shell(2003), plywood, cable ties, 7면 설치, 사진 제작 J1 Studio(j1studio.com) 5 원복부터 미디어 아티스트·영화감독 박경근, 가구 디자이너 조재원. Photo by SY Ko 6 필동 팩토리 1층의 쇼룸 씬 컬렉티브(SOME Collective) 내부. 맨 오른쪽 박경근 작가의 Space Time Machine(2015)을 비롯해 박경근 작가의 나무 스톨 등도 전시되어 있다. Photo by SY Ko 7 조재원, M, Stool(2000), 사진 제작 J1 Studio(j1studio.com)



##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현재와 미래

그렇게 완성한 필동 팩토리의 2층은 박경근 작가의 작업실인 동시에 조재원 작가와 종종 대화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쇼룸의 공간이다. 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다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언뜻 생각하면 다른 것 같지도 잘 통한다. 박경근은 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원형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창계천 메들리>(2010), <철의 꿈>(2014), <군대: 60년의 초상>(2016) 등으로 미술계와 영화계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작가. 작품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그의 작업실도 건물에 숨겨져 있는 골조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강된 자재가 거의 가공 없이 노출되는 인드스트리얼 분위기로 꾸렸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주거 공간인 3층과 더불어 곳곳에 조 작가와 송 대표의 흔적이 묻어 있다. 예컨대 깔깔하면서도 윤치 있는 주방 가구러던지 반드시 좌우 발을 교대로 밟아야 하는 모퉁이 깔깔한 계단 등은 조 작가의 작품이고, 건물 앞 철제 간판은 송 대표의 손길이 닿았다.

1층에 송 대표의 제작소와 나란히 자리 잡은 씬 컬렉티브는 디자인 가구와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재원 작가의 친형인 조윤중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2008년 LA에 J1 스튜디오를 설립해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3년 전 한국으로 들어온 조 작가의 작품은 기본 모듈을 통해 자유로운 변형과 확장이 가능한 실용성을 갖추었다. 거기에 나무 소재가 지닌 따뜻함을 모던하게 잘 풀어낸 달콤한 미학을 끌고 있다. 쇼룸에는 조 작가의 가구뿐 아니라 강성 등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 그리고 디르크 플라이슈만(Dirk Fleischmann), 타이드 오닐(Taigh O'Neill)을 비롯해 박경근 작가의 예술 작품들도 만나 볼 수 있어 작지만 알찬 전시장 역할을 한다. 필동 팩토리는 그를 명칭도 상호도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완가를 할 수 있었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만들어 준, 협업의 뿌듯한 첫 결과물이다. 박경근 작가는 현재 구상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은 말할 수 없지만 조재원 디자이너, 승병의 대표와 꾸러갈 창

조적 협업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 시대의 연금술사 같은 송 대표와 늘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의논할 수 있게 두 작가는 더 든든하고, 익숙이 솟을지도 모르겠다. 현대미술을 하는 예술가, 가구 디자이너, 엔지니어의 삼각 구도가 일궈낸 공간의 미학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어떤 흥미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킬지 궁금해진다. 글 김원경(류케이티) Edited by 고성연



지난 5월 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어이 없이 사망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그는 8분 46초 동안이나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병원에서 실려 가기도 전에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과거 흑인 미식축구 선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태극기 자체가 바로 이 안타까운 생명의 사인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미술계에도 불어온 블랙스플로테이션 바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5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의 공식 초상화를 공개하는 40년 전통의 행사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간에서는 이 그림의 정체에 대해 더욱 관심이 고조됐다. 미국의 젊은 흑인 미술가 케힌데 와이일리(Kehinde Wiley, 1977)와 에이미 셰럴드(Amy Serrald, 1973)가 각각 그린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부부의 초상화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이미 2018년 위상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내셔널 갤러리에서 공개된 작품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그린 흑인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그 결과 평권의 2배에 달하는 2백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케힌데 와이일리는 영웅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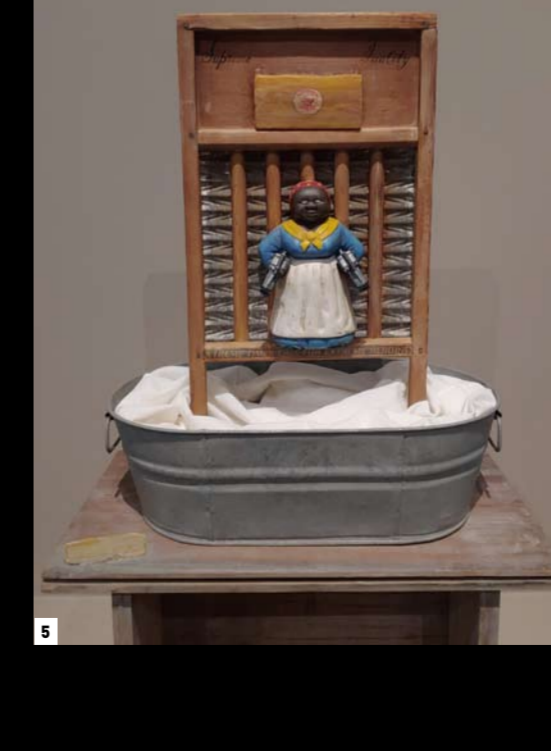
하는 명작의 주인공을 흑인으로 대체하는 화법으로 잘 알려진 작가다. 화려한 무늬를 배경으로 스포츠 웨어를 입은 그의 작품 속 흑인 청년들은 예수나 영웅처럼 포즈를 취한다. 반면 미셸 오바마를 그린 에이미 셰럴드는 파스텔 톤 배경에 차분하게 인물을 그려낸다. 스타일이 대조적이긴 해도 두 작가는 거대한 캔버스에 인물을 담아 그동안 흑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고급함을 부여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녔다. 마치 흑인을 선한 주인공으로 내세운 블랙스플로테이션 장르의 영화처럼,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초상화를 낫 놓고 바리보던 어린 흑인 소녀의 사진이 보도되자, 그녀를 초청해 함께 사진을 보내며 큰 꿈을 가져온 훗날 내가 너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보겠다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남기기도 했다. 포즈와 그림, 이 모두는 글과 말 이상의 힘으로 만인의 평등이라는 구호가 지닌 착원점을 드러낸다.

유럽·아프리카에 이은 미국 출신 흑인 작가들의 부상 재능 있는 흑인 예술가들이 주류 미술계에서 활약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촉발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미국 태생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결이 다르다. 이들은 제3세계 작가로서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이 급부상할 때조차 주목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던가. 백인권에 작품이 소장되면서 불

루침 작가로서 입지를 다진 글렌 리곤(Glenn Ligon, 1960)은 흑인으로 변장했을 때 받은 수모를 기록한 백인 기자의 회고록, 코넬리우스 스토프의 흑인 누드 모델 사진에 대한 반등 등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흑인의 삶을 메타 비평하듯 작품에 담았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대표로 참가한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는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흔히 보던, 흑인들의 곱슬머리를 파는 데 사용하는 종이, 즉 '백인'이 시는 동체가 철저히 다루진 지도 등 여간 남아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흑인 예술가의 작품,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의 역사와 삶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젊은 블루칩 작가뿐 아니라 히터면 잊힐 뻔했던 과거의 작가도 다시 조명받을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2018년 가을, 뉴욕 현대미술관 재개관을 장식한 첫 전시로 주목받은 베티 사트(Betye Saar)가 대표적이다. 1926년생으로 올해 95세인 그녀는 흑인 어머니의 전통을 비판 없이 가져다 쓴 대중문화의 아이콘 언트 제미마(Unt Jemima)를 통해 청순나 요리 같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인종, 계급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페미니즘 미술사를 통해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소외되면서 재평가받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흑인은 또다시 배제된 존재였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메시지를 앞세운 인권 운동에 반하는 입장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대거 약탈했기에 그들을 공개란 볼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여성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듯이, 흑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미술관이 정상화될 때, 흑인을 위대한 소수 커뮤니티에 속한 예술가들의 활동이 정착적으로라도 더 견고하게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글 김원경(이인아트컨설팅 대표) Edited by 고성연



루침 작가로서 입지를 다진 글렌 리곤(Glenn Ligon, 1960)은 흑인으로 변장했을 때 받은 수모를 기록한 백인 기자의 회고록, 코넬리우스 스토프의 흑인 누드 모델 사진에 대한 반등 등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흑인의 삶을 메타 비평하듯 작품에 담았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대표로 참가한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는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흔히 보던, 흑인들의 곱슬머리를 파는 데 사용하는 종이, 즉 '백인'이 시는 동체가 철저히 다루진 지도 등 여간 남아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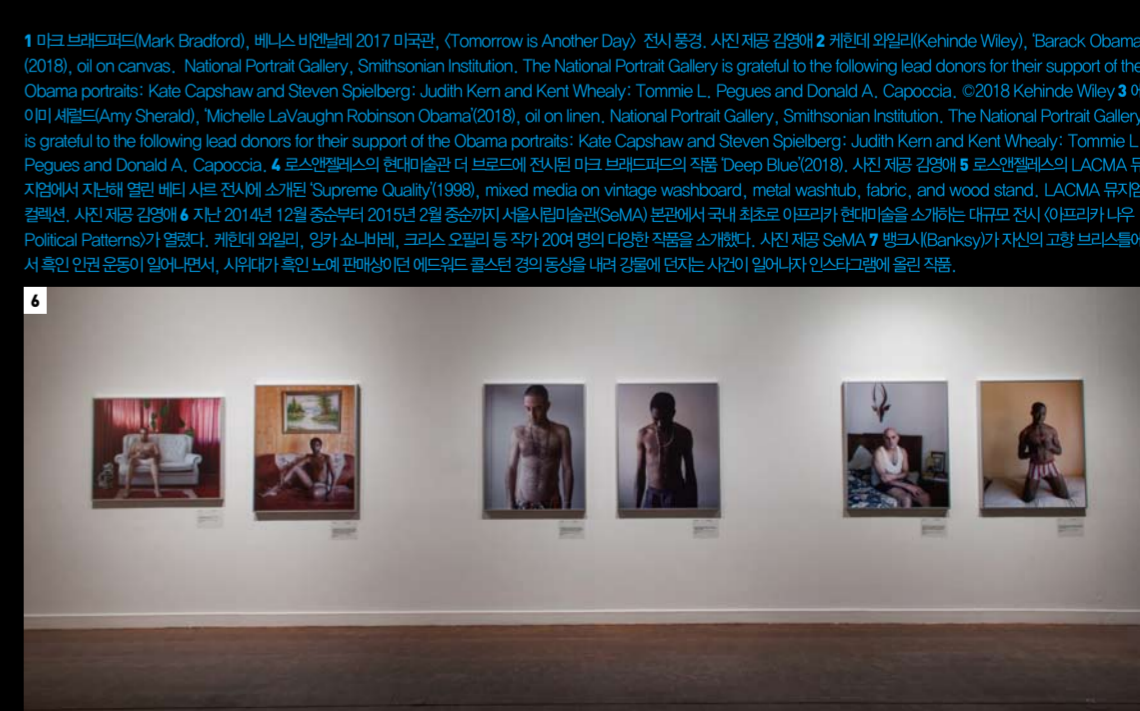
흑인 예술가의 작품,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의 역사와 삶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젊은 블루칩 작가뿐 아니라 히터면 잊힐 뻔했던 과거의 작가도 다시 조명받을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2018년 가을, 뉴욕 현대미술관 재개관을 장식한 첫 전시로 주목받은 베티 사트(Betye Saar)가 대표적이다. 1926년생으로 올해 95세인 그녀는 흑인 어머니의 전통을 비판 없이 가져다 쓴 대중문화의 아이콘 언트 제미마(Unt Jemima)를 통해 청순나 요리 같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인종, 계급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페미니즘 미술사를 통해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소외되면서 재평가받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흑인은 또다시 배제된 존재였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메시지를 앞세운 인권 운동에 반하는 입장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대거 약탈했기에 그들을 공개란 볼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여성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듯이, 흑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미술관이 정상화될 때, 흑인을 위대한 소수 커뮤니티에 속한 예술가들의 활동이 정착적으로라도 더 견고하게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글 김원경(이인아트컨설팅 대표) Edited by 고성연



# 약자를 돌보는 예술

21세기 들어 지구촌 최대의 난제로 등장한 코로나19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던 이들을 수면 위로 불러내고 있다. 정신병원, 노인 보호 시설, 이주 노동자, 특히 종교, 동성애 클럽...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 미국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 흑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 흑인 시민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건이 모두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하는 미술계에서는 이미 이 같은 현실에 날카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자를 위한 미술의 존재감이 보다 드러날지 주목된다.



1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 베니스 비엔날레 2017 미국관, (Tomorrow is Another Day) 전시 풍경. 사진 제공 김원경 2 케힌데 와이일리(Kehinde Wiley), 'Barack Obama'(2018), oil on canvas.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s grateful to the following lead donors for their support of the Obama portraits: Kate Capshaw and Steven Spielberg; Judith Kern and Kent Whealy; Tommie L., Pegues and Donald A., Capocchia. ©2018 Kehinde Wiley 3 에이미 셰럴드(Amy Serrald), 'Michelle LaVaughn Robinson Obama'(2018), oil on linen.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s grateful to the following lead donors for their support of the Obama portraits: Kate Capshaw and Steven Spielberg; Judith Kern and Kent Whealy; Tommie L., Pegues and Donald A., Capocchia. 4 로스앤젤레스의 현대미술관 더 모더니티에서 전시된 마크 브래드퍼드의 작품 'Deep Blue'(2018). 사진 제공 김원경 5 로스앤젤레스의 LAOMA 뮤지엄에서 전시된 베티 사트 전시에 소개된 'Supreme Quality'(1998), mixed media on vintage washboard, metal washub, fabric, and wood stand. LAOMA 뮤지엄 컬렉션. 사진 제공 김원경 6 지난 2014년 12월 중순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서울시립미술관(SeMA) 본관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 <아프리카 나무: Political Patterns>가 열렸다. 케힌데 와이일리, 앙카 쇼니베레, 크리스 오펜의 등 작가 20여 명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사진 제공 SeMA 7 뱅크시(Banksy)가 자신의 고향 브리스톨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위대가 흑인 노예 판매상인 에드워드 콜스턴 경의 동상을 내려 강물에 던지는 사진이 일어난 자 인스타그램에 올린 작품.



**Walter de Maria\_Milan**  
 세계적인 대지 미술가 월터 데 마리아(Walter de Maria)의 개인전(1999. 11. 11~2000. 1. 4). 이 역시 월터 데 마리아가 첫 번째로 가진 개인전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창작된 조각 작품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전시했는데, 작가의 주요작인 'Cross'(1965), 'Museums Piece'(1966), 'Star'(1972), 'Gold Meters'(1976), 'Beds of Spikes'(1968~1969) 등을 여러 기판에서 공수해 왔다.

**Tobias Rehberger 'On Otto'\_ Milan**

자본품 서울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비톤에서도 독일 현대미술가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의 개인전(2007. 4. 20~6. 6). 영상 같은 시각예술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관객의 반응을 지켜보는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시도를 밀라노에서도 접할 수 있었던 전시다. 제르마노 첼란트의 작가의 신중 인터뷰 내용이 실린 도록도 소장할 만하다.



**When Attitudes Become Form: Bern 1969/Venice 2013\_Venice**

프라다 재단의 근사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베니스에 있는 유서 깊은 필라초 카 코르네로 델라 레지나(Ca' Corner della Regina)에서는 2013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전시가 열렸다(2013. 6. 1~11. 3). 1969년 베른 쿤스트할레에서 하랄드 스테른(Harald Szeemann)이 기획했던 혁신적인 전시를 재현하는 전시를 선보인 것. 대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원래 제목을 딴 《When Attitudes Become Form: Bern 1969/Venice 2013》은 현재의 공간에서 과연 베른에서 느낀 것과 같은 힘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능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반영된 프로젝트였고, 한 공간에 두 공간이 공존하게 하는 실험이기도 했다. 제르마노 첼란트, 렘 콜하스, 그리고 토마스 데만트(Thomas Demand)가 함께 기획을 맡았다.



Photo by Attilio Maranzano  
 Courtesy Fondazione Prada

1996 1997 1999 2000

2007

2009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Courtesy Fondazione Prada

**Michael Heizer\_Milan**

미국의 조각가이자 대지 미술가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개인전(1996. 12. 15~1997. 1. 31). 제르마노 첼란트가 프라다 재단에 합류한 이래 처음으로 큐레이팅을 전적으로 맡은 전시다. 하이저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가진 규모 있는 개인전이기도 했다. 하이저의 작품 세계는 지금도 리코르디 이사르코로 옮긴 프라다 재단 미술관의 터워 건물에서 접할 수 있다.



내보출한 이미지

**Prada Transformer\_Seoul**

프라다가 브랜드 차원에서 2009년 서울 경희궁에서 건축가 렘 콜하스, 그리고 렘 콜하스가 이끄는 건축사무소 OMA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2009년 3~7월). 크레인 등을 이용해 회전 가능한 4면체 구조물을 설치하고 패션, 영화, 미술 등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제르마노 첼란트의 프로젝트는 이(하지만 미술 부문은 프라다 재단이 맡고, 당시 속 한국을 찾았다.



**Art or Sound\_Venice**

예술과 소리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대칭적이고 양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획전(2014. 6. 7~11. 3). 제르마노 첼란트가 큐레이터 역할을 맡은 이 전시에서는 예술과 소리의 관계, 악기의 상징성, 아티스트와 유작의 역할, 시와 예술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앨빈 루시어(Alvin Lucier)나 존 케이지(John Cage) 등 작곡가의 악기나 작품,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와 백남준 등 1960년대 예술가들의 작품 등 다양한 오브제와 작품이 전시됐다. Photo by Attilio Maranzano

Courtesy Fondazione Prada



Courtesy Fondazione Prada

**An Introduction\_Milan**

밀라노 엑스포가 열린 2015년은 프라다 재단에도 특별한 해였다. 밀라노 남동쪽의 라르고 이사르코(Largo Isarco)에 새로운 전시 공간(Fondazione Prada Milano)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기획전으로 여러 전시가 개최됐는데, 밀라노의 새 전시장에서는 《An Introduction》이 이듬해 초까지 계속됐다(2015. 5. 9~2016. 1. 10). 1993년 현대미술을 후원하는 재단을 운영해온 이래 대체로 조각과 함께해온 첼란트도 이번에는 미술, 환경 미술 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국경을 넘어 확장했다. 그해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1967년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그리스 작가 야니스 쿤넬리스(Jannis Kounellis)가 있었는데, 제르마노 첼란트는 지난해 프라다 재단의 베니스 전시 공간에서 열린 쿤넬리스의 개인전을 자신이 큐레이팅을 총괄한 마지막 전시로 남기게 됐다.

**Jannis Kounellis\_Venice**

프라다 재단의 베니스 전시 공간에서 지난해 열린 야니스 쿤넬리스(Jannis Kounellis, 1936~2017) 회고전(2019. 5. 11~11. 24). 이태에서 태어난 야니스 쿤넬리스는 1960년대 포베라(Arte Povera) 그룹의 대표 주자로 활약한 작가다. 제르마노 첼란트가 이태 포베라라는 용어를 창안하게 된 1967년 전시 때 함께했다. 결국 첼란트가 마지막 큐레이팅한 전시의 대상이 됐다. Photo by Agostino Osio - Alto Piano



Courtesy Fondazione Prada



프라다 파운데이션을 이끈 전설의 큐레이터  
**the artistic journey of germano celant**

누구의 스럽짐인들 안타깝지 않을까하는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비롯된 한 예술계 거장의 죽음은 이 생태계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문화 예술 플랫폼인 프라다 파운데이션(Fondazione Prada)의 비전을 이끌어온 세계적인 큐레이터이자 미술 사학자, 비평가, 이론가인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 1940년생인 그는 이미 한국 나이로는 80대지만 워낙 열정적인 행보를 펼쳐왔기에, 앞으로도 빼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애석하기 짝이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다. 프라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기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영국 현대미술계의 기린아 테이머인 허스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르마노 첼란트의 초상을 올려놓기도 했다. 아티스트 출신이 아닌 미술인으로서 놀라움 만큼 폭넓은 애도를 받는 그의 창조적 여정을 돌아봤다.

지난 4월 말, 이탈리아 밀라노 밤 부고가 날아들었다. '프라다 재단은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를 기억한다'는 제하의 갑작스러운 비보였다. 이어 '한국 최초의 미술 전문 기자'라는 칭호를 얻은 이규일 미술평론가의 별세 소식도 전해졌다.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제르마노 첼란트는 아마도 스카기는 정도의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기도 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감상할 수 많은 전시들 중 꽤나 강한 인상으로 남은 기획전을 몇몇 지휘한 큐레이터였고, 그 콘텐츠를 품는 멋진 공간을 창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한 '브레인'이었으며, 한 사람이 해내다고는 믿기 힘든, 무려 2백 권이 넘는 미술 서적을 집필하거나 편집자로 참여했던 왕성한 저술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봄에는 제대로 만남을 가질 기회를 아쉽게 놓친 적이 있는데, 당시 그의 직책을 듣고는 궁금둥이 더 커졌다. 'Artistic and Scientific Superintendent'라는 딱히 번역하기도 힘든 화려한 타이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다. 아쩔 수 없이 미술계에서 쓰이는 '관장(director)'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내부적으로는 그런 호칭이나 명함을 사형화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지휘(directing)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자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를 뽑내는 프라다 재단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뮤지엄(muse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그들은 문화 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하루의 기관이나 센터로 여긴다). 아마도 관습에 얽매지 않는 지성의 소유자 제르마노 첼란트의 독특한 면모는 다분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사랑하는 프라다 기증자들과 꽤 많은 공감을 이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뉴욕 근대미술관 미술관의 큐레이터 등을 거쳐 1995년 프라다 재단에 합류한 이래 25년의 세월을 함께한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반세기 넘게 전시의 역사를 새로 써온 미술계의 큰 별 제르마노 첼란트는 일찍이 미술계에서 이름을 떨친, 슬럼프 빠진 데다 기회도 빨리 잡았던 행운이다. 1967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젊은 큐레이터인 그는 5명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했는데, 이때 스스로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가난한 예술', '빈약한 예술'이라는 뜻의 아르테 포베라는 보잘것없는 재료와 단순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미술 운동으로, 이탈리아 아방가르드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개념 미술, 환경 미술 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국경을 넘어 확장했다. 그해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1967년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그리스 작가 야니스 쿤넬리스(Jannis Kounellis)가 있었는데, 제르마노 첼란트는 지난해 프라다 재단의 베니스 전시 공간에서 열린 쿤넬리스의 개인전을 자신이 큐레이팅을 총괄한 마지막 전시로 남기게 됐다. 사실 그의 눈부신 전시 이력을 지면에 담아야만 할 대강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프라다 재단에 들어간 뒤 전적으로 맡은 첫 전시인 미국의 조각가이자 대지 미술가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개인전(1996~1997)부터 시작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뒤에서 지원을 했던 단체를 수놓은 걸출한 재능들과 협업했다. 에시 쿠퍼(Anish Kapoor), 월터 데 마리아(Walter de Maria), 프란체스코 베를리(Francesco Vezzoli), 배리 맥기(Barry McGee),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라온 골롭(Leon Golub), 나탈리에 유르베리(Nathalie Djurberg)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획전으로도 미술사에 남을 만한 공간형 콘텐츠의 지휘를 만들어냈다. 그중 하나는 개념 미술을 앞세워 기존의 틀과 형식을 벗어남으로써 미술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제로 꼽히는 《When Attitudes Become Form》(1969)을 베니스에서 재현하고, 현재와의 연결을 시도한 2013년의 기획전(일명 'WABF69/WABF13')이다. 또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유행했던 20세기 초반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격동을 아우른 기획전 《Post Zang Tumb Tuuum, Art Life Politics: Italia 1918-1943》도 그의 역작으로 평가된다. 창조자로서의 큐레이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제르마노 첼란트. 그의 전시는 다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끝말 '품절'도 없는 그의 깊은 저서와 도록이 여전히 숨 쉬고 있으니 말이다. 글: 고영현

1 지난 4월 밤 세상을 떠난 미술계 큰 별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 Courtesy Fondazione Prada 2 2015년 밤 밀라노 남동쪽의 라르고 이사르코에 새롭게 문을 연 프라다 재단의 전시 공간. 내로남불 건축 거장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이끄는 OMA가 1백 년도 넘는 오래된 중후추 공장을 재상장 문화 예술 콘텐트를 소화하는 복합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Photo by SY Ko



2

# ‘지속가능성’의 가능성을 고민하다, 코사이어티

지난해 가을 오픈 기간 동안 크리에이티브 그룹 스튜디오 텍스처 온 텍스처가 참여한 전시(변화 구성),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 ‘다다오는 커피’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난 서울 성수동의 ‘잇 플레이스 코사이어티(Cociety)’. 서울 성수동 서울숲역 근처에 ‘자유를 부르려는 듯한 고즈넉한 이 공간의 이름은 ‘co’와 ‘society’를 합친, 마음 맞는 창작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뜻하는 조어다. 원래는 멤버십 공간으로 운영해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면 소수만 접근할 수 있던 코사이어티는 코로나19에 따른 오랜 휴지기를 끝내고 얼마 전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로 정식 오픈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문을 열게 된 코사이어티의 매력을 들여다본다.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는 일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뉴노멀’이 된 듯한 세상이다. 비야흐로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진다 해도 여전히 사람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와 그 사이로 오가는 영감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중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서울숲 부근에 자리한 코사이어티는 혼자라도 좋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나만의 힘을 믿는 두 대표(이민수, 유헌영)가 만든 공간이다. 세상에 흔치 않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실험적인 비즈니스로도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는 특정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업계 종사자도, 새로운 비전으로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는 경영자도 넓은 의미로는 크리에이티비티에 속한다.

## 자유와 미학과 스토리텔링이 깃든 공간 브랜딩, 어디까지 확장할까

코사이어티를 소개하려면 물리적 공간을 둘러싼 스토리텔링을 빼놓을 수 없다. 성수동이라는 동네의 특성상 코사이어티 건물 역시 과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본래 금속 가공소던 낡은 건물이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코사이어티의 운영사 언컷미들(UMP)의 전신인 스튜디오언컷이 기획과 설계를 직접 맡았다. 스튜디오언컷은 재생 건축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풍이 아니라 오래 머물러도 피로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힐링 공간’으로 코사이어티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주황색 키펀이 은근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 대문밖에 난 대문을 열고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피티로 둘러싸인 하얀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은 크게 작업 공간에 가까운 A동, 대화와 교류의 공간 B동, 박공지붕이 매력적인 전시, 행사 공간 C동, 실외도 살려낸 아늑한 피티라운 D동 등 4동으로 나뉜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골목부터 A동에서 D동, 그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장면 전환이 매력적이다. 덕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일부 공간 천문가를 시야에서 입소문이 제대로 났고, 지난해 12월에는 골든스케일디자인아워드를, 올해 1월에는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기획된 공간에 콘텐츠를 채우고, 사람들이 불러 모아 유기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언컷미들은 코사이어티라는 브랜드를 창조했다. 공간 디자인과 브랜딩을 하는 스튜디오 첫 뿌리를 내렸지만 이제 지역 리서치, 건축 설계, 콘텐츠 기획,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건축주나 토지주에게 기획-설계-운영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내년에 제주는 새로운 공간을 선보이는 등 전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힐링과 스토리텔링의 미학이 깃든 공간이 궁극히 어떤 일대 성수동의 리운지부터 체험해볼 수 있다. 글 Sours K Edited by 고성현



1 지난해 여름 가을 오픈하면서 이미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서울 성수동의 ‘잇 플레이스 코사이어티(Cociety)’. 멤버십이나 프로그램 기획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모두에게 개방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라는 정체성을 띤 채 최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2 점점 변화해지고 있는 성수동이지만 서울숲 부근에 자리한 코사이어티는 역사관에도 도심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살려낸 실외도 아닌 피티라운 D동의 모습. 3 커피바, 라이브러리 등 대화와 교류의 리운지 공간인 B동. Photo by 박지현 4 지난해 8월 가을 오픈한 크리에이티브 그룹 텍스처 온 텍스처의 (변화 구성(Varying Texture)) 전시 풍경. 최근에는 6월 정식 오픈과 함께 매거진 (BOOK)을 발행하는 로우프레스(Rawpress)와 차(茶)를 주제로 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Photo by SY Ko 5 휴식의 내용이 절로 느껴지는 코피타운. 6 입구 골목을 지나 사에 들어오는 A동과 B동의 모습. Photo by 박지현

도심 속 넓은 공장 자리에서 매력적인 문화 예술 지구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 성수동. 이 동네를 가려면 한눈에 봐도 세련된 감각이 묻어 있는, 하지만 강남 한복판의 뭔가 매끈한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운치와 활력을 풍기는 거리와 골목이 갈 때마다 생기는 듯 느껴진다. 지난 늦은 봄에도 평범한 듯 평범치 않은 공간이 새롭게 들어섰다. 언뜻 흔해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인데, 자세히 보면 범상치 않은 요소가 여럿이 숨어 있다. 또 모든 공사가 건물 외벽을 제법 크게 수놓고 있는 데다, 입구의 문에도 수수께끼 같은 수식이 새겨져 있다. 청문과 문을 감싸는 가리없는 초록빛 틈도 은근히 시선을 잡아끈다. 상업 화랑 갤러리바톤이 한 문화 예술 후원자에게 힘입어 오래된 건물을 탈바꿈시킨 대안 예술 공간 챕터투 아드(Chapter II Yard)의 모습이다. 4년 전 서울 연남동에 이르기까지 (주유파인메드와 함께 꾸린 챕터투(Chapter II)에 이어 국내의 신진·중견 미술가의 활동을 위해 만든 비영리 미술 공간 2호다.

## 영국 미술가 리암 길릭의 손길이 깃든 작지만 알찬 대안 공간

챕터투 아드의 전시 공간 자체는 반듯하게 그다지 크지 않은 면적으로 펼쳐져 있다. 지난 5월 중순 열린 개관전인 주세균 작가의 개인전을 예로 들자면



## 성수동 공간과 보조를 맞추는 연남동의 챕터투, 그리고 작은 책방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챕터투 아드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원조’ 대안 공간 챕터투는 일찌감치 연남동에 들어섰다. 2016년 11월 문을 연 챕터투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전시만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3명씩 선별하는 작가 레지던시,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주세균 작가 개인전이 성수동에서 개최되기 앞서 서울 초 챕터투 본관에서 열렸듯, 때로는 두 공간을 가르는 순환 전시를 꾸리는 연계 플랫폼이 되기도 한다. 또 작은 전시 공간 옆에는 레지던시와 이어지는 아담한 ‘이트 카페 버스 투(Verse II)’가 자리한다. 입주 작가들은 각종 작품이 걸린 이곳에서 커피를 즐기며 사색을 즐기기도, 머뭇머뭇하기도 한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작가들도 즐겨 찾는다. 0번 ‘이트 카페 버스 투’에 크루 컬처로 활약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잠깐 언급된 이코버비트 코스모스의 장서영 작가도 2018년 입주했던 작가 중 한 명이고, 다른 두 멤버(윤지영, 손현선)도 챕터투에서 전시를 했다. 챕터투를 운영해온 나윤정 실장은 ‘이코버비트 코스모스는 손현선 작가의 챕터투 개인전 뒤물이 자리에서 결성됐다’고 귀띔하면서 그들이 꾸준히 전시를 이어가 뿌듯하다고 미소 짓는다. 특히 연남동 챕터투를 찾는다면 건너편에 자리한 아담한 책방 스프링 플라어(Spring Flare)도 기억해둘 법하다. 젊은 예술가와 애호가에 대한 마음을 담아 이름 지은 이 사업은 종이 불꽃처럼 번져 나가는 뜻을 지닌 후원자 최준섭(주유파인메드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소설, 에세이는 물론 챕터투에서 진행한 전시 도록 등도 접할 수 있으며, 미술 분야 서적은 도록 한 권도 디테일의 미학이 느껴지는 룩 세팅하게 만드는 갤러리바톤에서 큐레이션을 담당한다. 글 고성현

# 창조적 지평을 넓히는 ‘진심의 공간’, 챕터투 아드+챕터투

건축가 알도 로시는 건축은 ‘도시의 기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전시라는 콘텐츠는 ‘공간의 기억’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미술가나 기획자에게 그러한 기억들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비영리 공간을 상업 화랑인 갤러리바톤에서 선보여 눈길이 간다.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부를 정도로 문화 예술 공간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 터를 잡은 대안 예술 공간 챕터투 아드(Chapter II Yard). 먼저 생긴 연남동의 챕터투(Chapter II)에 이은 두 번째 공간이다. 열린 문을 형상화한 로고의 로마자 ‘II’는 미술가들에게는 작가 활동의 제2장이, 그리고 문화 예술 향유자에게는 개방된 교류의 장이 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비전을 담았다고. 해외에서 인지도와 명망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의 역량 있는 신진·중견 작가에게도 주목해온 갤러리바톤이 추구하는 ‘진심의 공간!’ 그 면면이 궁금해졌다.



1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수동에 선보인 비영리 대안 예술 공간 챕터투 아드(Chapter II Yard)가 들어서 있는 건물 외관. Photo by Joel Moritz 2, 3 챕터투 아드의 문에 반박적으로 새긴 공식은 영국 현대미술가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Behavior Personality Environment’라는 작품이다. Photo by Joel Moritz 4 챕터투 아드 개관전으로 열린 주세균 작가의 개인전 설치 풍경. Photo by 황정호, 사진 제공 아트인펀처 5 2016년 가을 서울 연남동에 터를 잡은 대안 공간 챕터투 내부. Photo by 임정희 6 지난해 챕터투에서 열린 이윤재 작가의 개인전 (Night Shade) 풍경. Photo by SY Ko 7 챕터투 건너편에 자리한 서점 스프링 플라어. Photo by 김연재





# almost all about Nick Cave

어떤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우 인기를 누리지만, 어떤 목소리는 처연해서 사랑을 받는다. 후자는 호오(好惡)가 뚜렷이 갈릴 수는 있어도 일단 좋아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팬심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멀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전 생애를 아우르는 회고전의 주인공이자 개성 넘치는 음유예인(吟遊藝人) 닉 케이브(Nick Cave)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름의 취향과 색채가 확연히 느껴지는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브랜드 구찌와 덴마크 자선단체인 베크 재단이 메인 스폰서로 힘을 보탠 <스트레인저 덴 카인드니스: 닉 케이브전(Stranger Than Kindness: The Nick Cave Exhibition)>을 소개한다.

'닉 케이브(Nick Cave)'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이 많을 듯하다. 꽤 강한 글로벌 팬덤을 거느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널리 알려진 팝 스타는 아니니까. 하지만 저절로 글 꿰는 듯 절절한 감성과 거친 듯 애절한 목소리의 소유자 톰 웨이트즈(Tom Waits)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한다면 닉 케이브의 목소리 역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외화를 즐겨 본다면, 딱히 인 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의 고독한 목소리를 이미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말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아비웃아입>에서 주인공 팀의 아버지가 자신의 장례식에 특정 뮤지션의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바로 닉 케이브다. 그러한 바람대로 나중에 장례식에 흘러나온 아버지의 테마곡 'Into My Arms'는 인생과 사랑을 담담하게 노래한다. 신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닉 케이브의 목소리는 가슴 먹먹하게 울뜨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1957년생으로 호주 출신인 닉 케이브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록 밴드를 결성하면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대에 유럽으로 넘어가 펑크 록, 포크, 블루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고 시인, 소설가, 극작가, 배우 등으로도 활약한 팔방미인형 아티스트다. 일각에서는 가수, 화가, 배우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로 절로 집착하게 만드는 목소리의 소유자 백현준을 가리켜 닉 케이브를 연상시킨다고도 한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된 닉 케이브는 더 이상 춤동과 광기로 무대를 해잡아놓지도, 절망을 짜내는 듯한 음악을 하지도 않고 초연해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고독, 중독, 상실, 이별 등 삶에 스며든 상처에서 한 발짝 벗어나 지켜보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한 음악을 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고스틴(Ghosteen)> 앨범을 내면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 코펜하겐을 조용히 달구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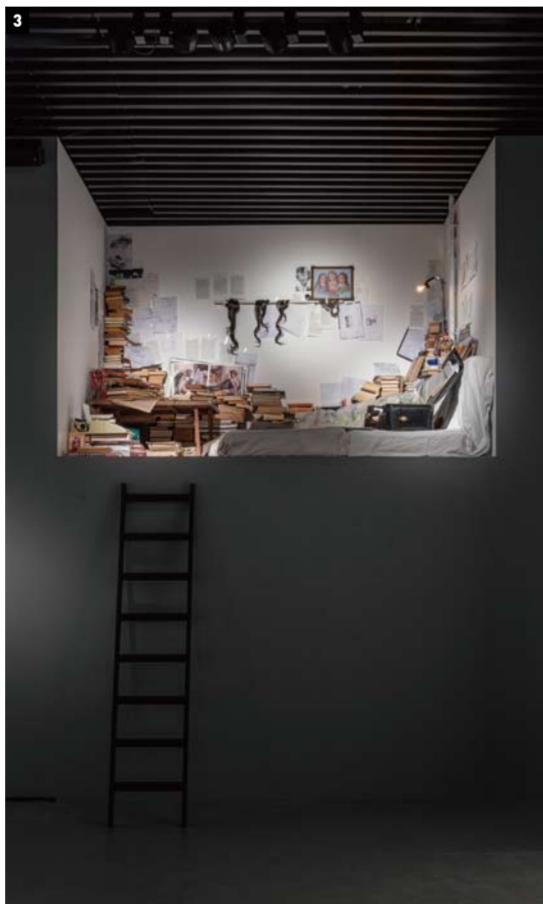
### 몰입형 전시 <스트레인저 덴 카인드니스>

창의성이 돋보이는 천재 뮤지션이나 문화 아이콘의 면모뿐 아니라 닉 케이브의 인간적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전 가지 성격이 강한 기획전 <스트레인저 덴 카인드니스: 닉 케이브전(Stranger Than Kindness: The Nick Cave Exhibition)>. 지난 6월 8일 북유럽에서 화기 사적, 예술가의 기록물을 최다 소장한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 왕립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막을 올린 이 전시에 앞서 <스트레인저 덴 카인드니스>라는 동명의 책도 선보인 바 있다. "이 독특하고 비정형적인 전시에 참여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힌 닉 케이브는 공동 큐레이팅과 디자인을 맡는 열정을 보였다. 큐레이터이자 디자이너인 크리스티나 백(Christina Back)과의 협업으로 사진, 영상, 기사, 초판, 예술품 등 60년 넘게 그가 수집해가나 만든 3백 장이 넘는 작품이 마치 예술가의 생각과 창의적 과정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거대한 몰입형 설치 작품들로 탄생했다. 그의 삶을 수놓아온 창조적 영감의 원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할 의도가 없었던 놀라운 예술적 과정도 엿볼 수 있다고, 닉 케이브는 또 오랫동안 뮤지컬 작업을 함께 해온 워런 엘리스(Warren Ellis)와 손잡고 전시장의 8개 룸을 위한 800㎡의 시운 스키페이브를 작곡·녹음하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 나자미이 울조라는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음 사이에 내뿜는 숨소리도 '예술이 된다는 닉 케이브의 목소리처럼' 기묘하게 아를 담고 감동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전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전시의 트레일러 영상(https://youtu.be/1AxaacTerC8)을 보고 '우리는 코펜하겐에 갈 겁나더라'는 글을 남긴 각국의 팬들이 간절히 내뿜는 기대와 바람처럼 하루빨리 지구촌을 누빌 수 있는 여행길이 다시 자유롭게 열리기를. 홈페이지 www.thenickcaveexhibition.com 글 고성연



1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스트레인저 덴 카인드니스: 닉 케이브전(Stranger Than Kindness: The Nick Cave Exhibition)>의 포스터. 코로나19 사태로 당초보다 늦은 6월 8일 시작된 이 전시는 내년 2월 13일까지 계속된다. 2-4 0 톨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와 덴마크 자선단체 베크 재단이 메인 스폰서로 지원하는 이번 전시는 천재 뮤지션이자 시인, 소설가, 배우 등 다방면에서 개성 넘치는 활동을 펼친 시대의 문화 아이콘 닉 케이브(Nick Cave)의 창조적 여정을 아우르는, 전 가지 성격이 강한 기획전이다. 그가 수집해가나 만든 3백 장 넘는 작품이 거대한 설치 작품으로 몰입감을 선사한다. Credit Anders Sune Berg 5 고독한 감성이 담긴 목소리로 글로벌 팬덤을 자닌 닉 케이브와 그의 아내인 패션 디자이너 수지 케이브(Susie Cave). 짙은 붉은색이 강렬한 그녀의 빨치 드레스는 구찌 제품이다. Courtesy of Getty Images



# Remember the EXHIBITION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불행에 맞닥뜨렸음에도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는 오히려 성의 있게 준비한 전시 콘텐츠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오감으로 직접 느끼고 몸소 거닐 수 있는 공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줄 다양한 전시를 소개한다. 다만 코로나 시대에는 사전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건 물론, 전시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예의가 필수 에티켓임을 잊지 말자.



**수원시립미술관 <백년을 거닐다>**  
신사십파 동인지이자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 백영수 작가의 전시. 1백5점에 달하는 작품과 함께 작가의 아틀리에를 재현한 공간 및 작가의 창작 세계와 연관된 삶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색선을 전시장에 구현했다. 자유로우면서 진지하고, 절제된 그의 예술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미술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전시 기간 8월 9일까지 문의 https://suma.swwon.go.kr



**국립현대미술관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등 아시아 현대미술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면모를 국내 외에 소개하는 아시아 집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기획전. 아시아 8개국 출신 작가 15명이 참여해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서 가족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참여 작가들은 길거리 포장마차, 투자 설명 부스, 뮤직비디오 상영 등 워크숍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총 61명의 작가가 참여한 <영화, 영화, 영화>전을 8월 16일까지, 청주관에서는 가상 인물의 하루를 통해 보존과학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보존과학자 C의 하루>를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기간 8월 23일까지 문의 www.mmca.go.kr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댄싱퀸>**  
아시아 여성 작가 26명의 대표 작품을 조망하는 대규모 그룹전으로, 여성 작가들의 실험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작품을 통해 여성과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질적인 개념의 차이를 마주할 수 있다. 깊고 미세하게 다른 종교, 역사, 문화를 경험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끊임없이 숙고하게 하는 여성 작가들의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 10월 11일까지 문의 www.arariogallery.com



**디뮤지엄 <나의 감정과 기억>**  
듣고 보는 경험을 통해 감성을 확장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간적 기획전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아온 '사운드 아트'라는 장르를 소개한다. 세계적인 작가 13명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관객 주도형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라이트 아트, 비주얼 뮤직 등 사운드와 비주얼 아트 작품 22점을 다양한 범주에 걸쳐 선보인다. 디뮤지엄 개관 이래 최대 규모 전시로, 관람객의 눈과 귀, 손을 적극 사용해 신체와 감정적 자극을 동시에 받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 기간 12월 27일까지 문의 http://www.daelimmuseum.org/dmuseum/index.do



**국제갤러리 <최옥경, <김홍석>전**  
강렬한 색채 사용과 대담한 필치를 통해 국제적이면서 한국적인 추상회화 기법을 이끈 최옥경 작가의 개인전. 국제갤러리 K1 건물의 재개관을 기념해 기획된 전시로, 잉크 드로잉이 주를 이루는 흑백 작업과 추상회화, 콜라주로 구성된 컬러 작업을 K1의 두 공간에서 각각 선보이고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리고 있는 김홍석 작가의 전시 <Short People>은 8월 16일까지 계속된다.  
전시 기간 7월 31일(서울), 8월 16일(부산)까지 문의 www.kukjegallery.com



**갤러리현대 <현대 HYUNDAI 50> Part 2**  
자난품 회자작 김환기의 '우주 05-IV-71 #200' 등으로 관람객 호응을 이었던 1부를 미루리한 갤러리 현대의 개관 50주년 특별전 2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갤러리와 동행한 한국 작가 16명과 해외 작가 13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관 전시장에서는 갤러리 현대의 역할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관에서는 이슬택, 권덕준, 박현기, 이강승, 이강수 등 주류 미술계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실험 미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9일까지 문의 https://www.galleryhyundai.com/main



**갤러리 페로탕 <클레어 타부레 형제자매들>**  
변화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클레어 타부레의 한국 첫 개인전. 작가는 지난 10여 년간 인물화를 주로 그려왔고, 인물을 그리는 것을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관심 대상 안에서 밖으로 비추며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 자신의 오빠를 그리기도 했다. 방향을 세상과 타인으로 전환한 그녀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타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전시 기간 7월 10일까지 문의 www.perrotin.com



**마아트뮤지엄 <빅 아이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기획전 <새로운 연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연대의 의미를 제시한다. 긴 휴간 이후 선보이는 첫 전시로, 12명의 작가 사진, 인터뷰 영상, 실시간 데이터, 회화, 설치, 텍스트 작업 등을 통해 코로나로 거리 두기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습을 표현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지닌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전체 전시 작품은 총 4백10여 점.  
전시 기간 9월 13일까지 문의 http://artmuseum.daegu.go.kr



**대구미술관 <새로운 연대(New Communion)>**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기획전 <새로운 연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연대의 의미를 제시한다. 긴 휴간 이후 선보이는 첫 전시로, 12명의 작가 사진, 인터뷰 영상, 실시간 데이터, 회화, 설치, 텍스트 작업 등을 통해 코로나로 거리 두기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습을 표현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지닌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전체 전시 작품은 총 4백10여 점.  
전시 기간 9월 13일까지 문의 http://artmuseum.daegu.go.kr



**인사센트럴 뮤지엄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이자 초현실주의 미술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회화, 사진, 다큐멘터리 등을 동원한 멀티미디어 체험형 전시로, 총 1백60여 점에 달하는 주옥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신 미디어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재해석한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기간 9월 13일까지 문의 02-325-1077



KIM GO EUN

# CHANEL

## J12

IT'S ALL ABOUT SECONDS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견고한 세라믹 워치. 스위스 메이드. 보증기간 5년.